

*
텃빈 충만
 *

폭설, 맹추위, 구제역, 무상급식... 새해 벽두, 묵직한 마음에서도 작은 희망의 해가 떠오르기를.
 텃빈 마음 어느 한 권에서 정의를 향한 뜨거운 숨결 하나 올라오기를.

한국 **YW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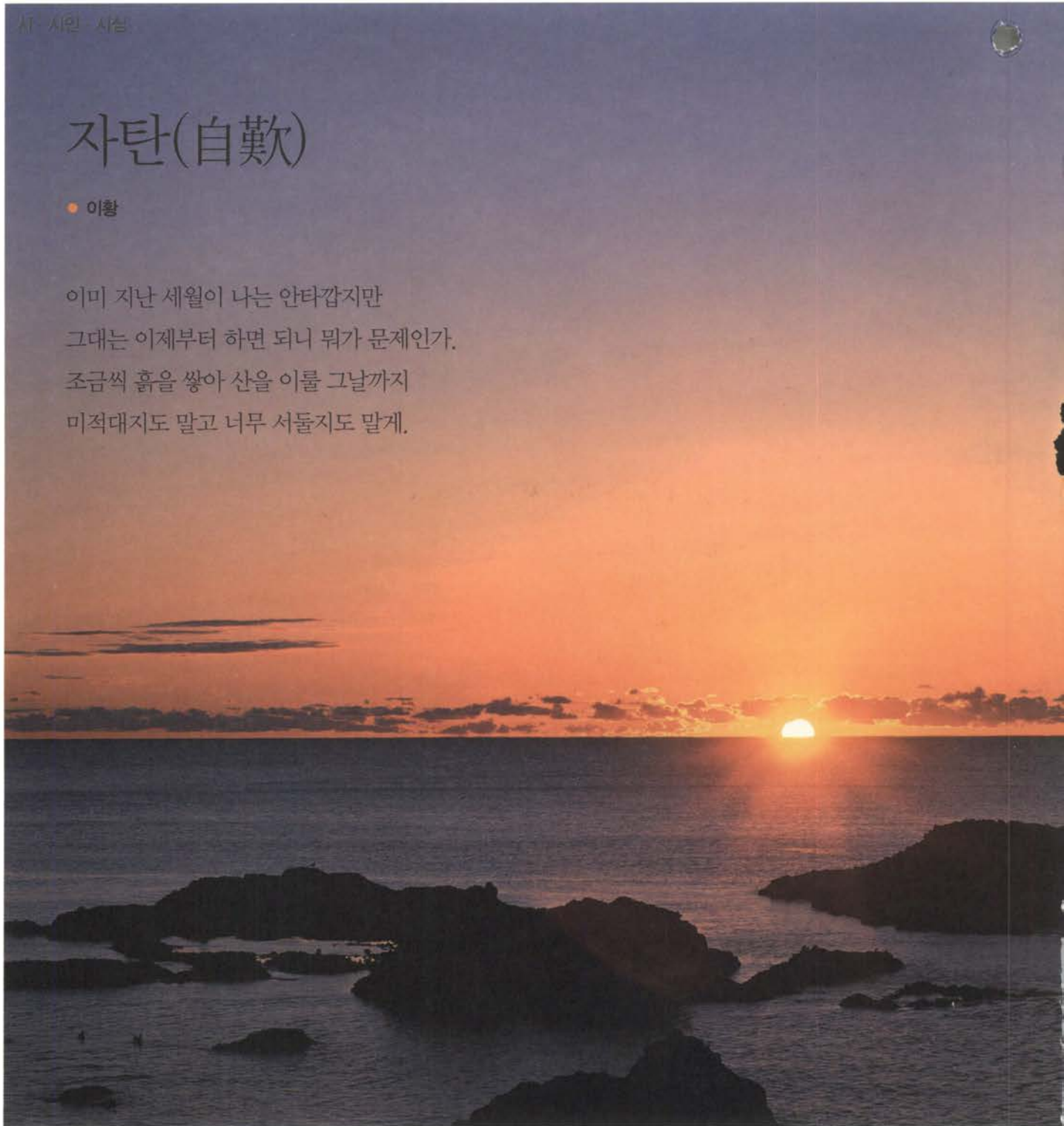
01+02

Vol. 478 / 2011

자탄(自歎)

● 이황

이미 지난 세월이 나는 안타깝지만
그대는 이제부터 하면 되니 뭐가 문제인가.
조금씩 흠을 쌓아 산을 이룰 그날까지
미적대지도 말고 너무 서둘지도 말게.



퇴계 이황(李滉 · 1501~1570)이 이 시를 쓴 것은 64세 때였습니다. 그가 도산서원에 머무는 동안 서울에서 찾아온 제자 김취려에게 준 것이었지요. 황혼의 시인은 '나야 이미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대는 아직 젊으니 앞으로 성심껏 노력하면 잘 될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너무 조금하게 굴지도 말고 그렇다고 어영부영하지도 말고 그저 꾸준하게 해 나가라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오래 음미해볼 구절이지요, '조금씩 흠을 쌓아 산을 이룰 그날까지/미적대지도 말고 너무 서둘지도 말게.'

● 고두현 시인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Contents

- 02 • 시·시인·시심_ 자탄(自歎) | 이항 | 고두현
- 04 • YWCA 현장 속으로
- 06 • 새해를 여는 시
- 07 • 신년사_ 한국YWCA연합회 회장 강교자
- 09 • 기획 I_ 청정세상 청년운동 I_ Y다운 청년성을 살리자 | 편집실
- 12 • 청정세상 청년운동 II_ 20대, 자신만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 김능현
- 15 • 기획 II_ 아름다리 기지단 모집 | 편집실
- 16 • 2011년 새해 덕담 한마디
- 21 • 시사만화 Y돌보기_ 장차현실
- 22 • 이슈 따라잡기_ 도대체 누가 혜택을 보는 거야 | 노수미
- 25 • 신간소개_ 편집실
- 26 • 중인 I_ 석세스 프로그램 | 최윤미(한국YWCA연합회 협력사업부)
- 28 • 중인 II_ 씽크머니 프로그램 | 최윤미(한국YWCA연합회 협력사업부)
- 30 • 틴틴 한줄달기_ 사랑의 우체국
- 31 • 문화공감_ YWCA 겨울방학 프로그램·특강
- 32 • 특집_ 박에스더 선생 10주기를 추모하며 | 이종경
- 35 • 한국YWCA 인터넷방송국 개국 안내
- 36 • 회원이야기_ 새해소망
- 38 • 1월의 YWCA
- 40 • 2월의 YWCA
- 42 • 세계 속의 한국 YWCA | 원영희
- 43 • 연합회 소식
- 46 • 회원YWCA 소식

2011.01+02

제47권 제1호 통권478호 2011년 1월 15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편집인 유성희
편집장 정진자 편집위원 김소영·김은영·김신영·김향규·김효선·김후남·문복희·백수경·선재희·윤혜원·이경
순·이세희·차희원·최종희 편집 박은실·이현운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6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디자인21(02-3443-4877)
구독신청안내 구독찬조금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택으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 :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의 YWCA에서는 회원과 이웃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아름다운 음악과 공연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풍성한 시간을 가졌다. 케냐 지라니어린이합창단이 창원Y와 진주Y의 초청으로 공연을 가졌고, 진주Y에서는 난쟁이 아동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려 어린이들의 노래를 통해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부산YWCA 음악회는 '새터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부산YWCA합창단과 우리소리 공연 등으로 새터민과 함께 따뜻한 연말분위기를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서귀포에서는 서귀포YWCA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열렸고, 사천Y에서는 청소년 댄스, 가요 경연대회가 열려 청소년들이 흥겨운 노래와 춤을 선보이고 다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를 학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광주YWCA 제15회 소비자의 날 대통령상 수상 :

광주YWCA는 광주시민의 소비자문제 해결과 권익을 위해 앞장서 온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12월 3일 열린 제1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웃사랑행사 :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춥게 느껴지는 겨울, 전국의 회원Y에서는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열렸다.

마산Y에서는 지역후원기업인 동양교통 나눔회와 함께 거동 불편노인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목포Y에서도 김장나눔행사를 통해 6,000kg의 김장을 600여 세대와 나누었으며, 순천Y에서는 연탄나누기 행사를 통해 이웃과 따뜻함을 나누고, 여수Y에서는 Y-틴 회원들이 사랑의 물레산타대작전으로 지역의 아동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YWCA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활동을 지속해온 YWCA에서는 연말 연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모임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양산Y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케이크, 카드 만들기, 이야기 나눔 모임을 가지며 그들의 한국생활을 돕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논산Y에서는 2010년 다문화사업을 정리, 평가하는 다문화성과보고회를 가졌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준비한 연극 '7인의 신부'가 공연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새해 하얀 일지(日誌)에

하얗게 비어 깨끗한 일지(日誌)
지난날의 끝이 이어지는 시작인데도
새날로 채워갈 빈 공간을 받았습니다.

그 칸들이 기다리는 꿈은 무엇입니까
의지도 긴장감도 없는 까만 글씨로
지난날 되풀이 안일의 기록으로 가기엔
너무나 환한 초청(招請)의 날들을 주셨습니다.

설레는 아침으로 시작하여
지난해의 고난 훨훨 넘어서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 적어가고 싶습니다.

새해 하얀 일지(日誌)는 말이 사랑이 되고
열정이 감동의 저녁 기도되는
그리하여 생명의 은총 내가 '나'임을 새기는
그런 축복의 날들로 꾸며가고 싶습니다.

● 2011년 1월 2일 詩 김재화
(한국YWCA복지사업단 이사장)

2011년 신년사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 글 |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 회장

젊은 여성들의 사명 터, YWCA가 89살이 되는 2011년을 맞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늙는 것이 아니다. 꿈을 포기했을 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만들지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혼에 주름을 만든다”는 맥아더 장군의 말이 기억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사랑을, 일주일을 시작할 때는 웃음을, 한 달을 시작할 때는 믿음을, 그리고 일년을 시작할 때는 꿈을 생각하세요” 라는 시 구절처럼 2011년의 시작에 YWCA의 꿈, ‘정의로운 세상’을 생각해 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꿈은 영혼을 흔드는 간절함, 불타는 열정, 헌신과 혼신을 다한 땀 흘림 위에 하늘에서 내리시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아침 이슬과 비와 햇빛을 안타까움으로 기다리며, 믿음의 맘을 흘리며 받을 가꾼 자들만이 거둘 수 있는 기쁨의 단입니다. 오늘 날처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팽배한 사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꿈’은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YWCA와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며, 89년 전 Y를 세우신 우리 선배님들의 꿈이요, 세상을 살리기 원하는 YWCA 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거룩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자비요, 사랑이랴’는 말씀을 YWCA에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확신하며,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시

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작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시작입니다. 이 거룩한 꿈의 첫걸음을 위하여 먼저 우리는 기도와 헌신을 결단하였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며 부르짖나이다” [시5:3]라는 말씀을 따라 매월 첫 날, 첫 아침 7시 30분에 전국 Y가족들이 이 거룩한 꿈을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의 힘, 생명의 바람으로 ‘정의운동’을 펼쳐 나가는 YWCA 2011년을 다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2011년’ 이라 쓰여진 새로운 선물상자를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시 42:5,11]는 말씀이 쓰여진 포장지로 알알이 싸여진 365개의 작은 선물들이 담겨져 있는 상자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헌신을 다짐하며 이 상자를 받읍시다. 하루하루 선물을 열 때마다, 이 선물에 담겨진 뜻을 찾아 이루어서 하늘과 땅이, 우리와 이웃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2011년을 만듭시다. 365개의 선물들이 다 열려진 2011년 끝자락에서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밝아진 우리 사회, 치유되고 회복된 이웃과 세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YWCA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로 새 해를 시작합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은총의 2011년을 기원합니다. 

청정(靑正)세상 : 청년이 정의로운 세상

우리는 쉽게 스스로를 Y인이라 부르고 Y다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너무 익숙하기에 정착 이 단어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는지 자문해 본다.
진정한 Y, 젊은이, 즉, 청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단어를 통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그리고 Y다운 인간으로서, 그리고 운동가로서
우리가 올 한해 가슴에 품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
2011년 새해, '청년정의' 운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우리의 정체성의 진수가 담겨야 할 '청년'과 그 청년이 추구해야 할
'정의'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자.



Y다운 청년성을 살리자

글 | 편집실



‘청년’을 생각하다

청년들이 정의(正義)를 잊어가고,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청년성을 되살리고 청년이 정의로운,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2011년 YWCA는 ‘청년정의’ 운동을 주력하여 펼치려고 한다. 월간『한국YWCA』에서도 이 주제를 기획기사로 다룰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Y다운 ‘청년’과 ‘정의’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청년, YWCA의 역사

우리가 매일 버릇처럼 사용하는 말, ‘Y’. YWCA의 줄임말은 ‘young’, 젊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합위원회에서 장윤재 이화여대 교수는 청년성을 자기가 사는 시대의 가치에 순응하거나 안주하지 말라는 사도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빌려 전했다. ‘젊음’을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변화와 갱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았다. 누구나 젊음을 가

질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말이다.

YWCA의 태생이 그러하였고, 청년운동은 1922년 조선YWCA 창립부터 YWCA운동의 주축이었다. 조선YWCA의 창립멤버인 김필레, 김활란, 유각경 이 세 사람은 하령회, 정신여고, 이화학당 등을 통해 그들의 리더십을 훈련받았고, YWCA 창립의 씨앗을 키웠다. 세 명의 기독교여성청년이 일제치하라는 국난과 뿌리깊은 유교사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YWCA가 한국에 뿌리내리도록 한 도전정신, 용기, 적극성은 청년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찍이 공창제의 폐지와 축첩제 반대운동은 개화기의 청년 리더십이 운동으로 발현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이어 1960년대에 들어 YWCA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법률상의 여권신장을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이 일어났고, 70년대에는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포와 발맞추어 더욱 활발해졌다. 이 운동은 2000년 대에 들어 호주제폐

지를 통해 남성을 가정의 주인으로 받들던 제도에서 벗어나 법률상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50여년 간 이어져 온 운동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여성 조기정년 반대 운동을 통해 일할 권리를 찾아내었고, 남영나일론 사건이나 동일방직사건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여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찾아내는 데에도 YWCA는 언제나 앞에 서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과 남존여비사상이 단지 2,30년 전만 해도 법으로서 보장받고 있었고, 여자는 차별받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기에 YWCA의 청년정신은 사회의 불의를 헤쳐나가는 등불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부흥으로 기독교청년운동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1970, 80년대에도 대학Y는 “스튜던트 파워를 사회정의실현에”라는 주제로 야간학교인 ‘평화교실’이나 농촌협력활동을 통해 꾸준히 불의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서클기피현상이 심화된 1990년대에도 인권, 환경 등 시대를 앞서나가는 이슈를 발굴해 나갔으며 이러한 전통은 다문화운동과 돌봄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으로 이어졌다. Y

의 89년 역사 동안 청년들이 내뿜는 열정과 아이디어, 진취성은 곧 YWCA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근간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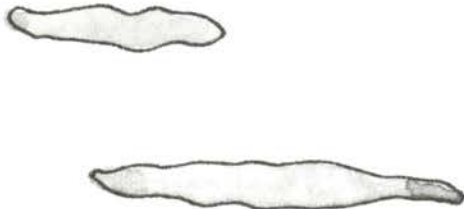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YWCA의 일원으로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

2011년 신년예배에서 이천진 목사는 현대신학의 대가이자 7,80년대 우리나라 민중신학의 이론적 토대가 된 위르겐 몰트만 교수의 2009년 방한 때의 연설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설명하였다.

“정의와 자비는 서로 모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이 놀라운 결론 이전에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정의는 죄인으로서의 가해자에 대한 구원과 용서는 강조되어 왔으나 피해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외면해 온 부분이 있었다는 진솔한 반성도 있었다. 가해자가 아무 조건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만으로는 완성된 정의가 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처참한 심정을 헤아리고 치유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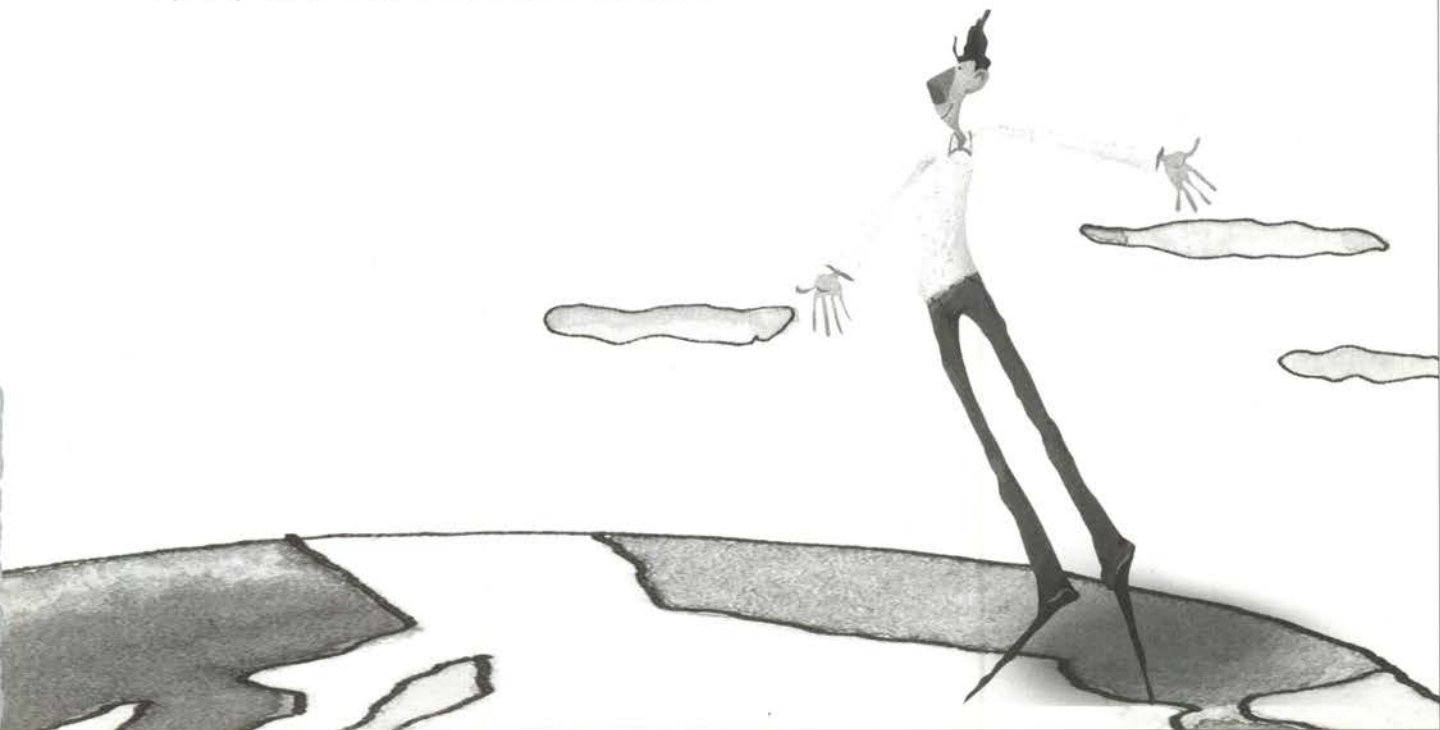
이 선행되고,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일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강조하였다.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인 영화 「밀양」에서 여주인공(전도연 분)이 자신의 목숨 같은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면회하려 갔을 때 그가 자신이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용서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통렬히 질문하고 저항했던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계층간의 반목이 심한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운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약자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치유와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희경 전 후원회 이사장도 신년예배 인사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정의를 방자한 상처주기와 복수의 쓴 고리를 끊는 궁극적인 정의이며, Y의 정의는 소리치기보다는 속삭이고, 때리기 보다는 만져주며, 비난하기보다는 보듬는, 우리 이름 그대로, 젊은, 기독, 여성의 정의가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년정의, 파랑새는 바로 내 옆에 있었다.

자, 이제 무엇인가 떠오르지 않는가. Y의 역사와 정신을 통해 '청년'과 '정의'를 되짚어보니 그 의미는 'Y다움'과 맞닿아 있다. 즉, YWCA다움이 바로 시대를 앞서 바라보는 젊은이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와 강자,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아우르고 보듬어 구원함인 것이다. 파랑새는 바로 옆에 있었던 것처럼 청년정의는 바로 Y다움 그 자체로 요약될 수 있다.

이제 청년정의를 찾아 떠났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자. 우리가 찾던 Y다운 청년성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Y 젊은, W 기독, C 여성의, A 연합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보자. 가장 Y다운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임을 자각하고, 청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것이 청년 정의 운동의 시작이다. 



20대, 자신만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 글 | 김능현 대학Y회원, 한양대학교



20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스펙(spec)'이란 단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스펙은 영어 Specification의 줄임말로, 제품의 사양 혹은 그 제품의 설명서를 뜻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 스펙이란 단어는 자신의 사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설명서를 말하는 것이다. 가전제품을 고를 때도 좀 더 많은 사양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듯, 대학생들 역시 누군가에게 '잘 팔리기 위해' 자신의 스펙을 쌓는다. 토익, 자격증, 공모전은 이미 3종 세트라는 말로 불리고 있고 그 외에도 교환학생, 어학연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스펙의 일부가 된다. 스펙 열풍은 이제 전쟁으로까지 비추어질 정도로 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 '스펙'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대학생들의 고민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그 검색 결과는 어마어마하다.

스펙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대학생들이 집착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질 것이다. 정답은 바로

취업,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도 어렵다는 취업난을 뚫기 위해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력서에 쓰이는 항목들을 최대한 뽀뽀하게 채워 넣으려면, 더많은 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학생들은 스펙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애를 쓴다.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한 번에 서너 개에서 많게는 대 여섯 개씩 하느라 허덕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다보니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든가 자신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은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겉은 화려한데 정작 내실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스펙 전쟁에 뛰어드는 대학생들을 마냥 혀를 차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 사실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가진 20대에 하루하루를 스펙을 쌓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그 자신들은 얼마나 서러울 것인가. 자신이 서럽다는 것조차도 느낄 새 없이 하루하루 취업 고민에 허덕여야만 하는 그 대학생들을 스펙 전쟁으로 내모는 것은, 뻔한 말처럼 들리겠

지만 이 사회이다.

20대, 날개 꺾인 청년

힘들게 들어온 대학, 대학생이 된다면, 20대가 되면 하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은 어느 순간 이상으로만 남

았다. 눈앞에 닥친 것은 1년에 천만 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 휘어져만 가는 부모님의 허리, 그리고 취업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는 수많은 선배들의 모습,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가 어려워졌다느니, 기업에서는 채용 규모를 줄인다느니 하는 뉴스들뿐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대학생들은 냉정한 현실에 부딪히자마자 훨훨 날아오르려던 날갯짓을 멈춘 채 조용히 사회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상을 향해 날아가기에는 20대의 뜨거운 가슴이 너무도 연약할 따름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진정성을 가지지 않는 사회 활동을 한다고 누군가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봉사증이나 활동 증명서 하나만 받아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약아빠진 20대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동아리 임기만 채우고 책임도 다 하지 않은 채 동아리 활동 증명서만 받아서 나가려는 약삭빠른 사람들은 내 주변에도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나의 초라한 스펙 목록에 무엇을 더 추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참을 고민하던 시기도 있었다.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력서를 작성하고 나면 왜 이렇게 빈 칸이 많은지, 혹시 내가 남들보다 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은 아닌지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열심히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공모전에서 한 번도 수상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했고 역시 대답은 '아니다'였다. 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에 대한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한 태도로 자신에 삶에 임하는지에 달린 것이지 결코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이력 한 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보면 저런 고민들의 대부분은 진짜 자신을 찾겠다는 고민이 없이 무작정 사회가 원하는 틀에 박힌 인간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20대라면 충분히 자아성찰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는 삶을 설계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의 20대가 설계할 수 있는 삶이란 건 고작 어떤 기업에 어느 부서에 취업을 하면 좋겠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어떤 기업 어느 부서가 원하는 사람은 무언가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빠지지 않는 평균 이상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대학생들은 하고 싶은 일 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들'에 뛰어든다.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정해놓은 길 밖에는 갈 곳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뭘까. 누구나가 하는 것처럼 스펙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무장하는 것? 그래, 어차피 이 세상에 맞서지 못 할 바에야 1등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아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덜 불행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도 행복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우리의

20대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의 봄이라 불리는 그 청춘을 쓸쓸하게 보낸다면 뜨거운 여름과 쓸쓸한 가을, 차가운 겨울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 '너도 똑같이 스펙 쌓기에 올인하는 대학생 주제에 뭘 어찌라는 거야?'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감히 내가 쌓고 있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라고 말한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을 읽으며 알게 된 것인데 스펙이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스토리는 그 과정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닥치는 대로 아무 곳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의 스펙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열정을 쏟는다면 그건 스토리가 된다. 어학연수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성적을 올렸다면 그것은 스펙이지만 어학연수에서 느낀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다면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스토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쌓아야 할 것은 수치화되고 정형화된 스펙이 아니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기에 유일하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스토리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이 우리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반면, 스토리는 우리를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데 있다. 우리 스스로가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방법은 스펙을 쌓아서 남들과 몇 점 대 몇 점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갖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실이나 사회를 핑계로 이 곳 저 곳 끌려다니기만 했던 우리라면 이제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그러다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전전공궁하며 더 많이 쌓아 올리려 했던 그 스펙들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멋진 스토리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인터넷이든 신문 기사를 뒤지든 당신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그 일에 뛰어들어라. 만약 스펙을 쌓기 위해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일에서 당신만이 그럴 수 있는 스토리를 찾아내라. 스펙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성실하게 사회에 맞추려했는지를 나타내는 증거라면 스토리는 당신이 삶에서 얼마나 커다란 리더십을 발휘했는가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결국 이 사회도 당신이 가진 스펙 보다는 당신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이지만,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가.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쌓자

마지막으로, 지금 열심히 스펙을 쌓아 올리며 이력서를 작성하는 당신이라면 당장 이력서가 무슨 뜻인지 한 번 되새겨 보라. 이력서(履歷書)는 신발(履)이 지나간(歷) 기록(書)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력서에는 적당히 쌓아올린 정형화된 수치를 써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밟고 지나온 인생의 스토리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당장 하나씩 실천해보라.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이라면 교육 봉사에 뛰어들 수도 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길 원하는 당신이라면 해외 봉사나 국제 캠프에 도전할 수도 있다. 이것들이 지금 당신이 쌓고 있는 스펙들과 뭐가 다르냐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스펙과 스토리의 걸모습은 사실 똑같다. 다만 그 활동에 뛰어드는 당신의 심장의 온도가 다르다. 조급해하는 마음으로 스펙쌓기에 도전하고 있는 당신, 지금 당장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 뜨겁게 뛰고 있는 당신의 심장을 애써 식히며 살기엔 당신의 청춘이 너무도 찬란하지 않은가. **W**

아름은 보듬고 립름하게 주장하며 드높은 Y의 뜻을 리(이) 세상에 알리는

제 1기 월간 「한국 YWCA」 아름드리 기자단 모집!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극적이면서도 토끼처럼 부지런히 뛰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연합회의 법인화와 전국대회와 세계대회를 모두 치르며 89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90주년을 준비해야 할 개혁의 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 YWCA 연합회지인 「한국 YWCA」도 그 변화의 물결에 발맞추어 거듭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한국 YWCA」는 회원 Y의 운동을 깊이있게 알고, 알리는 회원 Y의 눈과 귀와 입이 되고자 제1기 아름드리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5개 지역위원회에서 각 2 명씩 총 10명을 선발될 이번 기자단은 본인의 소속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회원 Y 운동과 행사, 인물을 심층 취재하여 월 1회 기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자 여러분의 기사는 「한국 YWCA」의 기사로 소중한게 쓰여짐은 물론, 연합회 홈페이지 게재, 회원Y 간의 정보공유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월간 「한국 YWCA」에서는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와 기사 제공을 통해

활동가로서의 견문을 넓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월 31일까지 A4 한 장 (10pt, 줄 간격 확대 없이) 분량의 단순한 지역 소식 이상의 주제와 문제의식이 담긴 기사 1건과 논리적이고도 기발한 자기 소개서를 연합회 월간지 담당 이현운 간사 (hylee@ywca.or.kr)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새롭게 도약할 월간 「한국 YWCA」가 지역 활동가들의 고민과 활동이 생생히 담긴 운동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 1기 월간 「한국 YWCA」 - 아름드리 기자단 모집개요 ◆

| 지원자격

전국 YWCA 실무자, 자원봉사자, 대학Y 회원

| 제출서류

기사 1건, 사진이 첨부된 자기소개서

| 지원마감

2011년 1월 31일

| 활동기간

선발 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 활동방식

- 지역위원회 단위, 회원Y 단위 운동에 대한 심층취재 기사원고를 월 1회 송부
- 월간 「한국 YWCA」기획주제 제안
- YWCA 연합회 회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
- 취재실비 지급

| 지원서 보낼 곳

hylee@ywca.or.kr / 문의전화 02)774-9706



2011년 새해 덕담 한마디

새해에 福이 많이 받으세요

辛卯年

●정리 | 편집실

세계YWCA가 한국YWCA에게

수잔 브래넨 세계YWCA 회장
나랏자이 굼본즈반다 사무총장

세계YWCA 회장 수잔 브래넨과 세계YWCA 사무총장 나랏자이 굼본즈반다가 한국YWCA의 모든 회원 여러분께 2011년 새해 희망과 선의로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성들이 안전한 세상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지원해 오신 한국YWCA의 모든 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한국YWCA가 국제적 운동에 보여준 여성지도력에 대한 헌신과 풍부한 경험은 하나의 영감이자 등대의 불빛입니다. YWCA는 2천 5백만의 전세계 여성들의 국제적 조직체입니다. 2011년은 우리의 운동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통해 배우며 다음 4년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준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대회는 우리의 운동을 통한 결속과 자매애를 다지고 이를 축하하는 자리이자, 모든 회원국들이 모여 여성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난 150년간 우리가 함께 해온 세계적 운동을 위한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자매 여러분께 평화와 행복의 2011년이 되시길 소망하며 한국YWCA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며...

퀸즈YWCA의 좋은 벗 한국YWCA에 새해인사

한정숙
뉴욕 퀸즈 YWCA 회장

토끼해인 2011년을 맞이하여 토끼처럼 뛰며 생각하

는 진취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매일 매일이 기쁨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퀸즈 YWCA 는 지난 32년 동안 우리 동포 사회,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이민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비전을 품은 한인 여성들의 땀과 눈물로 시작된 퀸즈 YWCA가 이민의 땅 미국에서 한인사회뿐 아니라 다인종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이사,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퀸즈 YWCA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한국의 YWCA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해에도 두 YWCA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YWCA 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변화의 한해로

이행자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이사장

한국YWCA연합회와 54개 회원Y에 2011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해 연합회와 후원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고, 2011년에도 새로운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2011년에는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가 명실공히 회원Y를 돕는 후원회의 위상을 잘 갖추어 법

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회원Y를 후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회와 회원Y의 자원봉사자, 실무자, 회원 여러분! 89년의 역사를 이어가며 2011년에는 더욱 기쁨과 보람이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열심을 다해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으로

김재화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하얀 빈 칸의 수첩이나 업무 일기장을 채워갑니다. 개개인들은 각양각색의 삶으로 적어가지만 YWCA는 개인의 주장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운동의 기록입니다. 새로운 비전이 적혀져야 하겠지요. Y의 나이는 성숙이되 정지가 아니며, 지난해의 경험은 진전의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성공만이 있는 해는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해 일은 후회보다 반성으로 가다듬고, 성과에 대한 기쁨은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새로운 비전을 향해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Y의 꿈을 새겨 줍시다. Y의 지도자는 항상 새로운 계획으로 설레어야 합니다. 개인적 취향이나 저마다 다를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을 고집하지 않는 공동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넓은 길에서 Y의 아름다운 정신으로 하얀 빈 칸들을 정의롭게 채워갑시다.

정체성과 자부심을 찾는 세계속의 Y로

김영정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Y는 언제나 시대에 대하여 예민한 관찰과 지혜를 가지고 임해왔습니다. 그동안 Y가 주력해온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운동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이제는 정신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명의 바람을 Y와 사회에 더욱 충실히 채워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세계에서든 한국, 그리고 한국YWCA를 인정합니다. 한국과 YWCA에 대한 정체성,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찾아 실천했으면 합니다. 금년 여름에는 세계대회가 열립니다. 세계대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의 흐름과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며 한국YWCA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대응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역할을 밀어주고 경륜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 공헌을 잘 받아들이고 통합하여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자극이 되는 Y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Y에 더욱 큰 지혜를 주시길 바라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라는 계기를 맞이해서 지금까지보다 더욱 박차를 가하는 Y가족이 됩시다!

사회에 큰 몫을 하는 YWCA로

김영희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전쟁을 치르고 어려움이 많은 나라의 젊은이로서 나라가 잘살게 되는 길을 생각하면서 나는 방송국의 프로그

램을 제작하는 프로듀서로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파리방송국연수로 꿈에 부풀어 파리에 도착하던 아침, 시내호텔로 들어가면서 골목길에 서 있는 많은 자동차들을 보면서 놀랐다. 이렇게 비싼 자동차를 길에 두고 자다니... 1965년도의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난했다. 이 나라 사람들이 풍요로워 보이고 사회 저변에 깔린 정직과 성실, 절약정신이 부러웠다. 1969년도부터 한국YWCA연합회 이사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기관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초를 따지며 사는 직장생활에 신선한 기쁨이었고 YWCA를 향한 발걸음은 나도 모르게 가벼웠다. YWCA와 함께한 생활은 내게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누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이제 명예연합위원으로서 후배들께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결정한 일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부터 실행에 옮기고, 정직과 성실, 절약으로 우리사회를 정화시키는 기반을 이루는 일에 YWCA가 큰 몫을 하자는 것이다.

초창기 지도자들의 정신으로

김현자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한때 YWCA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앞서가는 여성단체, 지도자가 가장 많은 단체, 장안의 여성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단체였다. 여성들은 Y가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구름떼처럼 모여들고, 일간신문에는 YWCA활동을 알리는 코너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Y는 이전처럼 매력있는 단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회원의 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특정분야에 치우치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다양화된 지역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 한 정치계 인사로부터 '아직도 YWCA가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이것은 어찌보면 국가의 경제발전과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 Y에서 하던 복지분야 활동이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예산을 받아 대규모로 시행하게 됨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수록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우리가 운동체가 아닌 하나의 기관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초창기 지도자들이 가졌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배려와 협동심을 가지고 일하며 다름을 수용하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제 11년 후면 100주년을 맞게 된다. 100년 동안 이 땅에 YWCA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Y공동체

정숙
경기지역위원장/안양YWCA회장

살며시 2010년을 닫으면서 2011년을 희망으로 열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1년은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볼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평화가 주렁주렁 열리고, 창조세계가 펼쳐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Y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구호와 글자로 만들어지는 생명없는 운동이 아닌 우리의 숨결이, 열정이, 생각이, 생

명이 담긴 돌봄과 나눔과 살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운동을 그려봅니다. 작은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작은 목소리에 더욱 크게 반응하며 서로서로 나누는 숨결 속에 살아나는 Y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을 나누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Y이지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Y 운동성 찾기

정돌연
동부지역위원장/진주YWCA회장

2011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해를 보내면서 울고 웃었던 사역 속에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하나를 채워주셨기에 YWCA 멤버로서 행복했습니다. 올 한해도 지역사회를 돌봄으로 사랑을 나누는 Y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진주YWCA는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 자치 활동과 연계하는 “골목길 지역 축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기업의 협조로 만들어진 다문화도서관 “단비”를 통한 새로운 다문화사업들을 꿈꾸어 봅니다. 도서관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활발한 자조모임을 펼칠 것이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이주여성들에게는 꿈을 나누어 주는 사랑방 형태의 공간도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런 꿈과 맞물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의 공동체를 살리는 통일된 전국사업이 기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판 사업이 되겠지요. 살림, 돌봄, 나눔을 가지고 어려움속에서도 풍요로움을 전하는 지역운동의 매개체가 될 것을 동부지역 15개 회원Y와 함께 희망

하며 다짐해 봅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씨앗으로 아름다운 꽃을

이연배
북부지역위원장/서울YWCA회장

지난 한 해 북부지역위원회에서 실시한 회장단 리더십 훈련과 회원대회, 협의회, 지방Y 방문, 실무자연합연수 등을 통해 각 YWCA 활동에 대한 이해와 인적 교류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2011년에는 이런 상호이해의 바탕 위에 공동사업과 협력의 기반을 더욱 넓히고자 합니다. 주력사업인 땅과 생명을 살리는 운동은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생산지 직거래를 늘리도록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북부지역에 속한 YWCA가 지역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지역Y의 지도력들이 생명의 씨앗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롭고 풍요롭게

이옥식
서부지역위원장/광주YWCA 회장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YWCA연합회 강교자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Y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토끼해를 맞이하여 지혜와 슬기, 번창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처럼 2011년 5부 지역 54개 YWCA가 더욱 지혜롭고 풍요롭게 번창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

명사랑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지도력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9월의 제38회 전국대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YWCA 운동과 정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국 YWCA의 정체성이 확립되며 기독교와 청년성이 회복되어 YWCA가 100년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가진 운동체로서, 늘 푸른 꿈나무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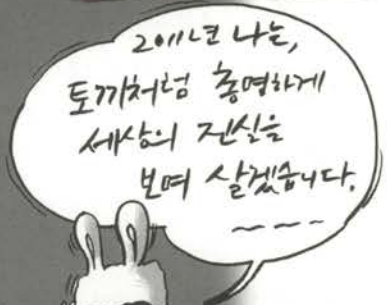
힘있는 한국YWCA연합회가 되기를

신영화
중부지역위원장/청주YWCA회장

지난해 지역위원장을 맡아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다녀오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YWCA연합회가 후덕한 말며느리 같은 친밀함과 따스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54개 지역Y의 현안 문제로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기도하며 지원하시는 연합회 회장님, 임원님들과 이사님들, 사무총장님과 실무자들의 노고가 더 큰 20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에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바람이라면, 좀 더 힘 있는 한국YWCA연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과 꿈을 꾸어서 지역으로 날려 보내주세요. 흉내를 내다보면 새로운 작품들이 창조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감사합니다. 

2011년에...



2011년
장차만신

도대체 누가 혜택을 보는 거야?

● 글 | 노수미 생활 칼럼리스트



“어라? 어디갔지?”
 “뭐 찾아?”
 “자동차 열쇠...여기다 뒀는데 없네. 길에 흘렸나?”
 또 또 시작이다. 남편은 늘 그렇다. 신용카드도 본인 것 잃어버린 후 내 것을 가져다 한참 쓰고는 내것까지 잃어버렸다. 현금카드도 지갑도 아무데나 놔두는데 고수인데 이제는 자동차 열쇠까지 잃어버렸단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큰소리를 땅땅치며 가물거리는 동선을 기억해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가시돋힌 말을 날려댄다.
 “그걸 잃어버리면 어쩌해. 다시 만드는데 돈이 얼마인데. 당신은 왜 항상 그래? 정신 좀 차리고 다녀”
 “.....”
 일상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로 전환되면 내 신경은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만다. 올해 초 제주도로 이사를 온 이후 그리고 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전업주부가 된 이후 가정 경제에 대한 나의 불안도는 상당히 민감해지고 말았다. 마치 손대면 툭하고 터질것만 같은 팽팽한 신경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말이다.

깨끗한 물과 바다, 산이 함께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다는 우리 부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2010년 1월 1월에 남편과 나는 제주로 이사를 하였다.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아무런 대책없이 무작정 내려온 것이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 밥까지 먹여주는 것은 아닌 법. 우리는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의 벽에 부딪혀야했고 전국에서 제일 물가가 싼 서울의 재래시장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제주에서 태어난 토실토실한 양분을 가진 딸래미는 한창 뒤집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지금, 소고기와 닭가슴살 이유식을 제일 좋아한다. 먹성좋은 아이의 입에 맞는 이유식 재료를 구입하려 시장에 가는 길에 나의 마음은 행복감보다는 걱정과 한숨이 앞선다. 매번 갈때마다 조금씩 오르는 물가는 나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고 지갑은 더욱 얇게 하기 때문이다. 작년 가을 쯤에 여당에서 제출된 저출산 대책이 그대로 올해 시행되었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을 본인들이 했던 말을 그것도 날치기로 뒤엎어버린 처사에 마음이 무너져 온다.

“뚜르뚜르뚜르”

정신을 차려보니 돼지저금통 굴러가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린다. 저금통 안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고 입구를 잘 봉해서 소리나는 공처럼 만든 것인데 잘도 굴러다닌다. 아이가 출생 7개월이 넘어가면 장난감으로 방울이 들어 있는 소리나는 형견공이 좋다고 육아서에 적혀있길래 하나 사주고 싶었으나 생활비의 부족으로 포기하고 말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집에 있는 빈 돼지저금통에 100원을 넣고 장난감 대용으로 만들었는데 플라스틱에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꽤나 크게 들린다. 옆에는 부엌용 스테인레스 그릇(일명, 스텡)이 나뒹군다. 장난감을 담은 바구니 대용이다. 온갖 부엌 살림과 엄마의 곱창 머리끈, 아빠의 수면 양말등도 아이의 장난감이다. 이런 잡동사니 한가운데서 아랫니 두 개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아이는 흡사 고물상 한가운데서 노는 듯 하다.

‘에구에구. 엄마가 널 녀마주이로 키우는구나’ 싶어 슬쩍 미안해지다가도 ‘도대체 국가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고 왜 책임을 안지는거야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사람들에게 원망의 목소리를 높여본다.

실종된 양육수당. 아이쿠 이게 웬말인가

작년 가을에 발표되었던 여당의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은 바로 양육수당 확대지급이었다. 어린 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전업주부들도 매달 일정금액을 양육수당으로 지급해준다는 달콤한 정책말이다.

현재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3인 가족 기준 133만원 이하)에서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양육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고소득층 30%를 제하고 국민의 70%에게 지급할 생각이라고 발표했었으니 그 발표가 있던 날 나는 육아스트레스가 몽땅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10명 중 7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한 달에

단돈 10만원만 받아도 기저귀값이 해결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 정책은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되었고 현재처럼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행이라면 기존 24개월 미만의 유아를 둔 가정에만 지급되던 것이 36개월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조금 나아진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예방 접종비용 지원 확대 말짱 도루묵

영유아 예방 접종 비용 400억 역시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경우이다. 2011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필수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백신비 8천원을 지원해주고 일반 병원에서 1만5천원의 접종비를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만 것이다.

필수 접종의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보건소가 지가는 버스가 없을 뿐더러 왕복 택시비를 합하면 동네 소아과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 나온다. 결국 모든 필수 접종도 병원에서 접종비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

지난 달 우리 아이는 2개의 필수 접종과 3개의 선택 접종을 하였고 모두 32만원을 지불하였다. 결국 신용카드 한도액이 초과되었다는 알림 문자를 받고 한동안 망연자실한 채 소아과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다. 소아과에서도 보건소처럼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서명운동에도 이름 석 자 꼭꼭 눌러썼건만 2011년 예산은 나의 이 소박한 꿈마저 저버리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 예방접종을 받는 비율은 75%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권장하는 95%보다 20%나 낮은 수치이다. 이처럼 필수 예방접종 비율이 낮은 것은 일반 병원의 접종비가 매우 높고 보건소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는 접종을 하

지 않은 영유아 뿐 아니라 접종을 하였으나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가 전액 삭감한 예방접종 비용을 경기도와 인천시가 최초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준다는 발표가 사뭇 반가운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할 권리를 누군가는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리다가 서울에 사는 영유아들이 경기도와 인천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본다.

보육료 지원 확대... 아이는 누가 키워?

내년도 예산안 중 직장맘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는 외벌이 450만원 이내(맞벌이 600만원)라면 보육시설 이용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는 기준액인 450만원을 월급으로 착각하고 국민대다수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월소득액,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보험 등'의 보유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45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혹시 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가정이라면 지자체의 보육료지원 사이트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은 확대되었으면서 양육수당은 왜 지원하지 않는 것일까? 아이를 낳고 나면 양육은 시설에 맡기고 부모는 맞벌이로 열심히 돈을 벌라는 이야기인가?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 3세까지는 부모의 보호아래에서 커가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다. 도대체 아이는 누가 키우나? 소가 키우나? 소가?


우~웅...핸드폰 진동이 울린다. 편지 봉투 모양의 문자 한통이 반짝거리며 아는 척을 한다.

'2011년에는 대박 예감'

누군가 보내온 신년 메시지는 마음 한 켠에 따뜻한 바

람을 일으킨다. 점심 한 끼 값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이제 도시락 싸서 다녀야겠다며 걱정하는 남편에게 이 메시지를 재전송해본다.

2011년 정부가 발표한 예산 중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거의 없으며 도저히 누가 혜택을 보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올해도 살아가야겠다. 매년 평균 3.5% 물가는 인상되고 공공요금도 매년 슬금슬금 인상되며 국제 유가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도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를 희망으로 연다.

희망을 안고 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2011년 대박 예감' 메시지를 마음속으로나마 전송해본다. 2011년 모두 대박나시길. 



<참고 사이트>

- 보육료 지원 계산기
http://women.seoul.go.kr/v2008/nurture/nurture_03_05_01_01.html
- 보건복지부 아이사랑보육포털 (보육서비스_보육료 지원)
<http://www.childcare.go.kr/>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정보_보육료 알아보기)
<http://iseoul.seoul.go.kr/>



식품주식회사

●글 | 에릭 솔로서 외 ● 옮김 | 박은영 ● 따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2010년 오스카상에 노미네이트되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식품 주식회사>(Food, Inc., 우리말 제목은 푸드주식회사)에서 제기한 여러가지 이슈를 더 깊이있게 다룬 책이다. 영화의 공동제작자인 에릭 솔로서, <잡식동물의 딜레마>의 저자인 저널리스트 마이클 폴런,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그라민은행의 창시자 무하마드 유누스 등 여러 저명한 저자들이 경제, 환경, 정치, 육아 등 우리 생활 모든 분야와 먹을거리 산업의 숨겨진 관계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더 잘먹고 잘살기 위해 시작된 식량의 대량생산,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어느 때보다 기아와 비만에 시달리고, 광우병, 조류독감, 돼지독감, 이콜라이균 감염 등 대량생산 먹을거리의 역공에 시달리고 있다. 각 장은 현대적인 식품생산 방식과 유전자 조작이 농장의 동물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다루고 어떤 새로운 질병들을 세상에 선물했는지, 식품교역이 어떻게 환경을 죽이고,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위험으로 내모는지, 친환경에너지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굶어죽게 하는지 등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먹으며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준다.

자아를 잃지 않는 엄마되기

●글 | 앤 플레셋 머피 ● 옮김 | 김혜원 ● 민음인

오랫동안 육아 전문지 <페어런츠>의 편집장을 지낸 저자는 육아전문가로서의 지식과 두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의 경험을 통해 거의 모든 육아서적들이 이야기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보다는 “왜 나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신과 출산부터 아이의 성장단계에 따라 아이의 발달에 맞추어 엄마 자신을 잃지 않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아름다움이 여자를 공격한다

●글 | 시드니 로스 싱어, 소마 그리스 마이어 ● 옮김 | 조혜연 ● 라이프맵

의료인류학자와 환경인류학자인 두 저자가 쓴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 유방암과 브래지어에 관한 연구서. 실제로 브래지어와 유방암의 연관성은 흡연과 폐암발생률의 연관성의 4배에서 12배에 이른다.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 특히 여자들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벗어 던지지 못하게 하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 여자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수준높게, 그렇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게 소개되고 있다.





YWCA-Citi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를 열다

● 정리 | 최윤미 한국YWCA연합회 협력사업부

석세스 프로그램-씹크머니 시상식이 2010년 12월 8일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2010년 시상식은 일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가한 선생님들과 회원YWCA, 금융교육 강사들이 함께 모여 지난 일 년간의 수고로 얻은 결과를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다.

한국YWCA와 씨티그룹이 손을 잡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석세스 프로그램과 씹크머니이다. 이 두 사업 모두 학교 정규수업으로는 다 담아내기 어려운 내용들을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의적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함께 여는 것", 어렵지만 씹크머니와 석세스 프로그램이 숨가쁘게 달려가는 이유이다.

* 2010년 석세스 프로그램 우수 프로젝트 수상자

기획재정부 장관상	신동준	안산동산고등학교
한국씨티은행장상	이은정	대구성당초등학교
경제·소비자 분야 우수상	이정식	서울동신초등학교
	고대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환경부장관상	이덕수	대구선명학교
한국YWCA연합회 회장상	허찬영	꿈의 학교
	김형선	평택안중중학교
환경 분야 우수상	정주영	성남효성고등학교
	김정희	청주성신학교
특별상	김영자	사직지역아동센터
	현정선	인천금곡초등학교
	자산숙	대구선명학교




석세스 프로그램은 1998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학교를 중퇴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현실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생각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처음 기획되었다. 한국YWCA는 2005년부터 씨티재단의 후원으로 6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 왔다. 해가 갈수록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선생님들의 수도 늘어나고 프로젝트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2010년에는 총 189편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지원되었으며, 일반 학교 뿐 아니라 대안학교,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환경과 경제에 관한 프로젝트들이 실천되었다. 이 중 12편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연결된

부분이지만 평소에는 관심 없이 지나쳤던 경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함께 하는 활동들을 통해 고민과 관심을 서로 나눌 수 있었다.

“자전거로 발전기를 만들었지만 정작 그 발전기를 사용하기 귀찮은 마음이 든다.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공부하여 대학교에 취직한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더 많은 물건을 사고 소비한다. 결국 더 많은 소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친환경인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2010년에 ‘자전거 발전기제작’ 프로젝트로 환경부분 한국YWCA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한 꿈의 학교 허찬영 선생님과 아이들의 프로젝트 후기가 석세스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를 대변해 준다. 



청소년 금융교육 씹크머니

● 정리 | 최윤미 한국YWCA연합회 협력사업부



***2010년 씩크머니 프로그램 우수 프로젝트 수상자**

우수협력학교	의정부 부용초등학교
	마산삼계초등학교
우수지점	한국씨티은행 과천지점
우수 회원Y	의정부Y, 조치원Y, 울산Y, 부산Y
우수 강사	한국씨티은행 김충곤 지점장
	수원Y 류혜진 강사
	전주Y 고은경 강사




2010
씩크머니
시상식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씩크머니는 금융과 청소년운동에 각각 전문성을 가진 한국YWCA와 씨티은행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2006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2010년에는 30개 YWCA가 전국에서 청소년금융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금융교육의 대상을 지역아동센터와 특수학교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금융교육을 받는 기회를 가지도록 했고 다문화금융교육을 위해 교재를 3개 국어로 개발하였다.

또한 금융교육의 효과 측정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 연구를 도입하였다. 씩크머니 프로그램은 YWCA 청소년 운동의 방향에 맞추어 청소년들이 금융지식 뿐 아니라 돈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2010년 씩크머니 시상식에서는 한 해 동안 협력학교로 금융교육을 함께 진행 한 협력학교 중 2개교와 YWCA의 파트너로 청소년금융교육의 보급에 힘쓴 씨티은행 지점과 우수 금융교육 강사들을 시상하였다. 청소년 금융교육 씩크머니는 우리 사회와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금융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해 왔다.

2011년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추어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가치관과 소비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금융교육 교재를 보완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금융 강사들의 교육과정도 정교화하여 청소년금융교육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에서 폭넓고 깊게 뿌리내리도록 힘쓸 예정이다. 

멋진 남자친구 사귀기

이유: 모태솔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유: 미리미리 대학등록금을 모으려고

대항을 잘갔으면 좋겠다

이유: 인생의 첫번째 도전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술중합학교 합격!

이유: 중학교때 부터 꿈이자 목표였던 곳이다.

성형수술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쌍꺼풀)

이유: 나의 미를 찾고 싶다.

제가 원하는 대항을 가게 해주세요

이유: 지금 성격이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키크기

이유: 지난 해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하는 일이 잘되면 좋겠다,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유: 공립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일을 찾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유: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유: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다.

3학년때는 내신 등급이 한 단계씩 꼭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유: 대학수시를 넣기에 좀더 유리한 등급을 받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지소원과 같은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유: 지소원은 나의 절친이기 때문에 없으면 섭섭하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한 해였으면 좋겠다

이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날씬해 지기

이유: 뚱뚱해서

내가 정한 약속 지키기

이유: 몇 개씩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내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유: 내가 정말 원하고,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의 우체국

10대가 원하는 것들

2011년 황성여고 학생들의 바램

'사랑의 우체국'은 Y-틴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래상담과 편지 주고받기를 통해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도우며 우정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YWCA 겨울방학 프로그램 특강

유난히 추운 올 겨울, 하지만 춥다고 집에만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1월과 2월 전국의 회원 YWCA에는 재미있게 놀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YWCA 겨울방학 프로그램과 특강에 참여해 함께 신나게 놀면서 추위를 날려 보내 보자구요!

▶ 놀며 배우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안양

YWCA [031]485-1318

날짜	행사명	프로그램
1월 22일(토)	꿈동지가꾸기	빙과후교실 대청소

고양

YWCA [031]919-4040

날짜	행사명	프로그램
1월 12, 19, 26일	청소년생명사랑 봉사대	중학생 하천살리기 환경운동

부산

YWCA [051]441-2221

날짜	행사명	프로그램
1월 21일, 22일	영어페스티벌	영어놀이

여수

YWCA [061]654-2161

날짜	행사명	프로그램
1월 20, 26일	여천시립도서관과 함께하는 초등경제교육	청소년 금융교육

대전

YWCA [042]254-3035

날짜	행사명	프로그램
1월 27일	어린이 경제 교실	청소년 금융교육

서귀포

YWCA [064]762-1400

날짜	행사명	프로그램
2월 12일	청소년빙과후아카데미	세계자연문화유산탐방

전주

YWCA [063]224-5501

날짜	행사명	프로그램
2월 15, 16일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클리닉	꿈을 가지고 인생목표 세우기

강릉

YWCA [033]651-1385

날짜	행사명	프로그램
1월 10~28일 (월,수,금)	NE활동 논술교실	신문으로 글쓰기 배우기

속초

YWCA [033]635-8663

날짜	행사명	프로그램
방학중 주회	자연환경 체험활동	자연학습

충주

YWCA [043]842-1929 / [043]848-3240

날짜	행사명	프로그램
1월 4일~2월 10일	즐거움 방학교실 (초등학생)	학습부진지원, 정밀클레이, 동화구연, 성교육, 경제교육, 체험학습 등
1월 22일	유소년 문화체험	에버랜드 눈썰매장
2월 26일		원주 미륵굴 민속체험

대구

YWCA [053]652-0070

날짜	행사명	프로그램
2월 18~19일	외환은행과 함께하는 '사랑 더하기 나눔은 희망' 캠프	열린마당, 얼음깨기, 꿈에대한강의, 위인경매, 문화체험, 맞는마당

▶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행사들

안양

YWCA [031]483-6536

날짜	행사명	프로그램
1월 17일~28일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 소양교육 및 환경봉사활동

안산

YWCA [031]483-6536

날짜	행사명	프로그램
1월 17일~21일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 소양교육 및 환경봉사활동



위대한 에스더 선생님 이야기 박 에스더 선생 10주기를 추모하며

● 글 | 이종경 한국YWCA연합회 전 사무총장



그리운 에스더 선생님, 선생님이 하늘나라 가신지 어언 10년. 해마다 절기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선생님의 모습은 한국 YWCA 역사를 찬란하게 비추는 빛, 한국 여성사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선생님, YWCA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 으뜸은 선생님과과의 만남입니다. 당신은 한국 YWCA 축복의 통로요, 발전의 초석이셨습니다. 한국 YWCA를 위해 사명자로서 헌신하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광복 후 YWCA 재건과 한국 YWCA 회관 건축을 위한 모금에 헌신하셨을 때의 많은 이야기들은 만리장성을 쌓아도 부족하지요, 모금을 위해서라면 당당하게 개인이나 기관을 방문하시는 선생님께 '거룩한 거지 왕초'라 별명을 붙여 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유일한 박사님에게서 캠프장을 기증받고 기뻐했던 일, 베어드씨에게서 캠프장 건립 후원금 받고 '베어드 홀'로 명명한 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매해 추수감사절에 직원 남편들을 'YWCA 사위'라 하시며 칠면조를 대접해 주신 일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범함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바자, 모금 행사의 대가이셨으며, 재미난 이야기를 무궁무진 가지고 계시면서도 누구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시는 소통가이셨으며, 요리, 원예, 인테리어 어떤 분야


에도 전문가였지요. 매 순간이 시편에 '주 안에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기 보다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셨던 선생님, 당신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사신 분이자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된 진정 예수쟁이! 온 몸 다 바쳐 하나님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참 그리스도의 향기, 제자의 본을 보이신 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가장 어른이신 선생님께서 손수 쟁반을 들고 대접하셨던 섬김의 모습,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셨던 비범한 모습, 사랑, 감사,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던 모습 모두 감사드립니다. YWCA 배지가 상징하는 '영, 지, 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고루 먹여 주셨던 것을 기



역합니다. 절기와 명절, 직원 생일파티 등을 위한 선물이며 음식들, 선생님은 매일 찾아오시는 산타였지요. 선생님께서 베풀고 쏟아부어주신 사랑의 무게를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초대 교회처럼 함께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쓰는 YWCA로 만들고자 하심은 당신의 신앙의 소산임을 새로이 깨닫습니다.

그리운 에스더 선생님, 위대한 에스더 선생님, YWCA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던 선생님, 사랑과 섬김, 미소와 포용, 친절과 겸손, 돌봄과 배려, 나눔과 봉사, 신앙과 헌신, 열정과 사명감.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이 값진 덕목들로 사람을 키우신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사명을 다하셨던 선생님의 한 평생은 어둠속에 있던 여성들을 눈뜨게 한 빛이었고, 사회를

변화시킨 위대한 에스더 스토리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과 이야기들, 당신의 신앙과 삶의 철학, YWCA 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값진 유산 잘 계승해서 창립 100년을 맞이하는 한국YWCA를 잘 세우고 부흥 발전시켜 나가도록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약력

- 1902.10.18 평안남도 출생
- 1928-1947 하와이 호놀룰루 YWCA직원
- 1947.8-1968.12 한국YWCA 고문총무
- 1969.7 하와이에서 정년퇴직후 한국YWCA로 귀임
- 2001.1.30 하와이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다

YWCA 회원우대 20년역사 "흙침대" 세일



발명기 李京馥 대표
특허료 100여개

수맥차단 특허
전자파차단 특허

미국 FDA 등록
☎1588 - 5335



130만원

경복궁

원목가구 1인용



169만원

신공주더블

원목가구 2인용



400▶ 260만원

거실용소파

국산 100%

발명특허 소가족

자랑스런 한국인 大償
연세대 최고 경제인 償
스위스 발명품대회 금메달
독 일 발명품대회 금메달
미 국 발명품대회 금메달
벨기에 발명품대회 금메달
장영실 과학문화 大償

- 명동본점 : YWCA 본관5층 (02)777 - 4888
- 잠실공장 : 잠실역 2번출구 (02)419 - 0888

◎ 전국 최대 전시장 ◎
www.smbed.co.kr

여름 : 시원하게 사용

명품침대는 SM 수맥흙침대

명품침대는 SM 수맥돌침대

겨울 : 따뜻하게 사용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열정

한국YWCA 인터넷 방송

INTERNET BROADCAST

한국YWCA연합회가 설립 이래 최초로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합니다. 인터넷 방송국 개국일은 제1차 연합위원회가 열리는 2월 10일(목)입니다.

한국YWCA는 지난 89년 동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한국YWCA의 세상을 향한 꿈을 회원Y와 Y가족, 나아가 한국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YWCA인터넷 방송국은 YWCA를 사랑하고 NGO 방송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이 운영합니다. 방송시간은 평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코너가 마련 되어있습니다.

첫째, Y 가족들의 근황을 비롯해 다양한 소식을 자유롭게 쓴 사연을 받습니다.

사연은 E-mail(ywcapr@hanmail.net)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명동 1가 1-3 한국YWCA연합회 2층 인터넷 방송국 담당자 앞)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둘째, 한국YWCA인터넷방송국 전용카페(cafe.naver.com/ywbs)에는 청취자 전화연결 코너, 신청곡 쓰는 게시판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한 후 해당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Y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발전적인 제안을 쓰는 게시판이 있으니, 좋은 아이디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YWCA의 방송은 한국Y가족 모두가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송은 개국(2월 10일) 이후 한국YWCA홈페이지(www.ywca.or.kr) 배너 또는 인터넷 방송국 카페(cafe.naver.com/ywbs) 배너를 클릭한 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소망

New Year's Re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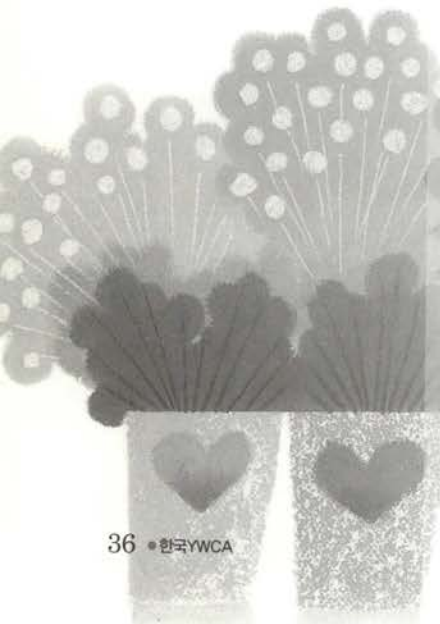
김혜경
결혼이민여성

필리핀에 있을 때는 학교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을 때 영어선생님이 되어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와보니 시댁이 과수원농사라 너무 바빠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니까 말을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남원YWCA에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원YWCA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살림·산모돌보미 교육도 처음엔 쉽게 생각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시골이기 때문에 교육시간과 버스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전에는 집에서 남편의 농사일을 돕고 오후에 수업 하는 거라 몸도 힘들었고, 또 식구들도 집에 일도 많은데 왜 하려고 하냐고 반대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끝나갈 때쯤엔 가족들도 도와주었고, 살림·산모돌보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기뻐했습니다.

나의 새해 소망은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을 해 보는 것입니다. 과수원 일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아버지께서도 시간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셔서 도전 해보고자 합니다.

2011년엔 용기를 내서 제 꿈을 맘껏 펼쳐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애들도 대학에 보내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김혜경 화이팅! 우리 가족 화이팅! 



남 잘 될 때 기뻐해 주자









송순임
파주YWCA 사무총장

모방송국 토크쇼에 출연한 여자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곤란을 겪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어려울 때 위로해 주는 친구보다 내가 잘되었을 때 기뻐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하였다. 맞는 말이다 싶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라.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위로해주는 일이 더 쉽겠는가, 승승장구 나보다 앞서 나갈 때 기뻐해주는 일이 더 쉽겠는가. 전자가 후자보다 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에게만 국한된 심술일까? 사람은 대부분 약자 앞에서 다소 심리적 여유를 갖는다. 따라서 사람이 말발깨나 세우고 유유자적한 표정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자신보다 없는 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자신보다 우월한 것에 대해 시샘을 갖도록 만든 것은 부지런히 자신을 채찍질하여 스스로를 발전케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1:28)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이만한 위력을 발휘하는 동력도 없겠다 싶다. 2011년 새해를 향한 나의 소망은 나보다 우월한 것에 대한 시샘이 공의를 위해 자주 발동하고, 그 시샘을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많이 하여 나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꺼내 주려 애쓰기 보다, 필요한 자를 만날 때마다 필요를 채워 주는 순간이 더 많기를 소망한다. 나보다 우월한 자들을 시샘을 넘어 꼭 찬 마음으로 기뻐해줌으로, 그들의 힘을 북돋고, 나로 인하여 창조적 영감(靈感)을 얻는 자들을 보게 되기를 소망한다.

2011년 새해 벽두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때, 갈멜산에서 바알선지자 사백오십인과 하나님 이름 하나로 승부한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름 하나있음으로 세상을 다 가졌기에, 위로 더 가진 자, 아래로 더 가지지 못한 자 두루두루 많이 사랑할 여유로 충만하여 미리 소망을 다 이룬 듯 감사하다.

1월의 YWC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p>2</p>	<p>3</p>	 <p>4</p>	   <p>5</p>
<p>고양Y 자원봉사 ·후원자 감사잔치</p> <p>2</p>	<p>목포Y 시무예배 서귀포Y 시무식 및 신년예배 전주Y 시무식 청주Y 신년예배 천안Y 왕초보영어개강 조치원Y 신년예배 제천Y 신년하례식 및 시무예배</p> <p>3</p>	<p>진주Y 신년예배 광주Y 전직원 신년예배 여수Y 여천시립도서관과 함께하는 초등경제교육 강릉Y 신년하례식 창원Y 돌봄과 살림 신년예배 충주Y 즐거운 방학교실 개강, 어린이 경제교실</p> <p>4</p>	<p>천안Y 자연주의 염색 개강</p> <p>5</p>
<p>순천Y 소비자 그린마일리 지 및 단위 가격표시 캠페인</p> <p>9</p>	<p>사천Y 신년예배 및 정기 이사회 광주Y 불우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목포Y 이사회 제천Y 지적장애인 만두 및 햄버거 만들기 체험, 요양보호사교육 개강</p> <p>10</p>	<p>수원Y 정기이사회 여수Y 여천시립도서관과 함께하는 초등경제교육 논산Y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신나는육감충전 문화체험 스키캠프</p> <p>11</p>	<p>수원Y 회계감사 제천Y 가정보육사 면접</p> <p>12</p>
<p>순천Y 소비자 그린마일 리지 및 단위 가격표시 캠페인</p> <p>16</p>	<p>안산Y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사천Y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마산Y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판팡 광주Y 돌봄과 살림 전환교육 강릉Y 정기총회 및 이사회 제천Y 요양보호사, 가정보육사 교육 개강</p> <p>17</p>	<p>안산Y 한국어교실 개강 안양Y 정기총회 인천Y 재미있는 민주주의 광주Y 사회적일자리 재교육 및 월례회 순천Y 구정바자회 여수Y 여천시립도서관과 함께하는 초등경제교육</p> <p>18</p>	<p>안산Y 정기총회 마산Y 가족사랑의 날 춘천Y 회원무료특강(꽃누르미) 군산Y 어린이집졸업여행</p> <p>19</p>
<p>30</p>	<p>23</p> <p>24</p> <p>서귀포Y 집단상담프로그램 '희망울집(job)아라' 익산Y 정기총회</p> <p>고양Y 복지관 떡국거리 나누기 제주Y 어린이집 민속놀이 강릉Y 회장 이·취임식</p> <p>31</p>	<p>마산Y 살림돌보미 월례회 광주Y 정기총회 사천Y 정기총회 진주Y 정기총회 포항Y 정기총회 춘천Y 정기총회 순천Y 정기총회 여수Y 여천시립도서관과 함께하는 초등경제교육 창원Y 돌봄과 살림 월례회</p> <p>25</p>	<p>마산Y 정기총회 포항Y 가정폭력예방캠페인 포항Y 소망의집 홍보(파출소방문) 원주Y 정기총회 광양Y 정기총회 제주Y 정기총회 김해Y 정기총회 및 신입사무총장 취임</p> <p>26</p>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Happy New Year



1

마산Y 찾아가는 취업상담청구
 마산Y 어린이집 학예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양산Y 다문화 한국문화 생활체험
 진주Y Y틴 등대지기, 날개 총회
 광양Y 신년예배
 광주Y 가사도우미 월례회
 충주Y 신년예배

순천Y Y양상블 정기모임
 순천Y 소비자 그린마일리지 및 단위가격표시 캠페인
 여수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민·관합동캠페인
 전주Y 신년예배

수원Y 초등놀이프로그램(미술관)
 서귀포Y 어린이집 학예발표회
 제주Y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청주Y 대학Y, Y-틴 정기총회
 동해Y 사랑의 바이올린 성남아트홀 발표회
 제천Y 전직원 단합 등산 대회

6

7

8

마산Y 어린이집 눈썰매캠프
 포항Y 한방진료
 양산Y 다문화 한국문화 생활체험
 여수Y 여천시립도서관과 함께하는 초등경제교육

부산Y 제6차 청소년 해외봉사캠프
 후원물품 모음
 순천Y Y양상블 정기모임,
 소비자 그린마일리지 및
 단위가격표시 캠페인

제주Y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대구Y "사랑 더하기 나눔은 희망" 멘토링교육

13

14

15

양산Y 다문화 한국문화 생활체험
 광주Y Y신협 정기총회
 서귀포Y 정기총회
 여수Y 여천시립도서관과 함께하는
 초등경제교육
 전주Y 정기총회
 논산Y 정기총회
 창원Y 정기총회
 조치원Y 정기총회

부산Y 영어페스티벌
 순천Y Y양상블 정기모임
 제천Y 정기총회

수원Y 초등놀이프로그램(실내)
 목포Y 정기총회
 서귀포Y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버룩시장
 제주Y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대구Y "사랑 더하기 나눔은 희망" 정기모임

20

21

22

수원Y 정기총회
 부산Y 정기총회
 양산Y 다문화 한국문화 생활체험
 청주Y 정기총회
 광명Y 정기총회
 동해Y 정기총회
 천안Y 정기총회
 충주Y 정기총회
 대구Y 정기총회

안산Y 영화는술지도사 과정 개강
 순천Y Y양상블 정기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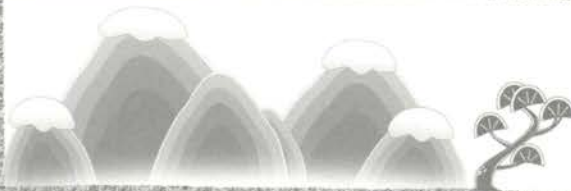
고양Y 정기총회
 인천Y 정기총회
 인천Y 증경회장 퇴임식
 군산Y 부설평화중고등학교 개교기념일 행사

27

28

29

2월의 YWC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연합회·회원 YWCA 월례 아침기도회 양산Y 어르신 한글교실 포항Y 명절맞이 행사 목포Y 결혼이민여성 자녀 찾아가는 한글교실 군산Y 독거어르신사랑의설명절선물나누기	2
6	7	마산Y 찾아가는 취업상담 창구, 다문화 한글반 개강 양산Y 어르신 한글교실 포항Y 운영위원회 목포Y 결혼이민여성 자녀 찾아가는 한글교실 제천Y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직업소양교육	연합회 신임회장연수(9~10일)
13	14	양산Y 어르신 한글교실 목포Y 결혼이민여성 자녀 찾아가는 한글교실 전주Y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클리닉 강릉Y 가사도우미 보수교육	마산Y 가족사랑의 날 제천Y 요양보호사 교육 증강
20	21	양산Y 어르신 한글교실 결혼이민여성 자녀 찾아가는 한글교실 살림돌보미 월례회 군산Y 부설평화중등학교 졸업식 제천Y 가사돌보미 양성 교육	포항Y 가정폭력예방캠페인
27	28		
	목포Y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실 대전Y 요양보호사 월례회 군산Y 군산교도소생일예배		

목요일

양산Y 다문화 한국문화 생활체험
어르신 한글교실

3

금요일

대전Y 여성의 쉼터 문화체험

4

토요일

5

연합회 제1차 연합위원회
양산Y 다문화 한국문화 생활체험
어르신 한글교실
포항Y 한방진료
마산Y 산모돌보미 월례회
대전Y 상담소 강사모임,
에너지강사 수료생 만들레 모임

10

순천Y Y양상블 정기모임
전직원연수

11

서귀포Y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세계자연문화유산탐방

12

마산Y 세탁물사고 분쟁심의
부산 부산YWCA 생협 된장 만들기 체험
양산Y 다문화 한국문화 생활체험
어르신 한글교실

17

인천Y 회장 이취임식 및 신축회관개관식(예정)
순천Y Y양상블 정기모임
대구Y "사랑 더하기 나눔은 희망" 캠프

18

마산Y 어린이집 졸업식
서귀포Y 동아리연합캠프
대구Y "사랑 더하기 나눔은 희망"
정기모임

19

양산Y 다문화 한국문화 생활체험
어르신 한글교실
순천Y 산모돌보미 월례회
대전Y 한울 클럽 모임, 집단상담 개강

24

부산Y 생협 법인설립 창립총회
순천Y Y양상블 정기모임
순천Y 건강돌보미 월례회

25

마산Y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충주Y 유소년문화체험-민속체험

2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Women Creating A Safe World' World YWCA Zurich 2011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여성

세계YWCA 2011 취리히 대회



● 글 | 원영희 2011 세계YWCA대회 정식대표·세계YWCA 이사후보



올해 2011년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세계YWCA총회(World YWCA Council, 7.10~16)가 열리는 해이다. 국제여성정상 회의(International Women's Summit, 7.12.~13)와 항상 함께 열리는 이번 세계대회의 표어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여성(Women Creating A Safe

World)이다. YWCA 세계대회 참가자들은 물론, 세계Y에 속한 한국YWCA의 회원들이 우선 주지해야하는 세계Y의 조직과 사명, 운동체로서의 실제, 그리고 중점운동을 정리해 지상으로 소개한다.

세계Y는 세계 125개국 여성들의 국경을 초월한 크리스천 공동체적 운동체이다. 1894년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정의, 건강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환경사랑 운동을 국가와 사회의 최전방에서 펼쳐 왔다. 그리고세계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힘써온 국제운동체이다. 현재 세계Y 회장은 호주 출신의 수잔 브레넌(Susan Brennan)이다. 세계Y 사무총장은 짐바브웨 출신 변호사이자 여성운동가 나랏자이 굼본즈반다(Nyaradzayi Gumbonzvanda)이다. 세계Y 이사회는 모두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임원단 8명에 이사 12명이 포함된다.

세계YWCA의 2008년~2012년 주요 운동 전략은 세 가지이다. 첫째, 지도력 개발(Leadership development)이다. 여성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효과

적인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키운다. 둘째, 운동과 봉사(Advocacy and Services)이다. 여성과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봉사하도록 이끈다. (분야: 건강, HIV & AIDS, 폭력, 여성인권, 정의로운 평화, 경제권, 환경지속성) 셋째, 건실한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감(Good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이다.

세계Y는 여성건강과 인권에 관련해 HIV와 AIDS 예방과 퇴치운동은 물론 다양한 차원의 평화적 국제협력력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지역과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등 핍박받고 차별받는 지역 YWCA에서 테러를 규탄하고, 기독교는 이문화권과 다른 종교권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일치된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동에는 1893년에 이미 팔레스타인Y가 세워졌고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 Y는 인내와 협력하는 마음으로 무슬림 지역 내 여성들과 함께 동역하며 공통의 비전과 긍휼(a common vision and with compassion)을 실천해 오고 있다.

세계Y는 오늘도 봉사정신으로 참여한 모든 회원들과 함께 여성지도력 개발과 이를 위한 세계 통합차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동적인 운동체로서 정의 평화, 건강, 인권, 자유와 지속가능한 환경건설을 위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YWCA의 이념과 노력과 헌신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부르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http://www.worldywca.org/>

전국회원관리 프로그램 민들레넷Ⅱ 개설



YWCA의 전국회원관리 프로그램인 민들레넷이 민들레넷Ⅱ로 새롭게 탄생되어 1월 17일 문을 열었다. 연합회는 그동안 회원관리시스템인 민들레넷의 개발과 유지 및 보수를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여 왔으나 관리비 절감, 회원Y 민원의 원활한 처리, 회계 등 기타 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 등을 위하여 민들레넷Ⅱ를 자체 개발하여 기존의 민들레넷을 대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합회 내 전문인력이 민들레넷Ⅱ의 유지보수를 담당하여 보다 신속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YWCA 월례기도회

2010년도 제 2차 연합위원회에서 가결된 YWCA 영성회복운동의 일환으로 YWCA 월례아침기도회가 2월 1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 기도회는 2011년 한 해 동안 매월 1일 오전 7시 30분에 연합회와 전국 회원YWCA의 실무자와 자원지도자, 회원들이 함께 한다. 월례아침기도회는 89주년을 맞는 YWCA가 진정한 시민운동체로서 거듭나고 2011년 펼칠 정의운동에 대한 다짐을 결단하는 YWCA의 영적 구심점이 될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화를 위한 임시연합위원회 개최

연합회 명예연합위원과 이사, 회원Y 회장을 비롯한 연합위원 53명과 방청대표 등 9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임시연합위원회가 1월 6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88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임의단체의 격을 가지고 활동해 온 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강교자 연합회 회장과 유성희 사무총장이 연합회 사단법인화의 필요성과 그간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고, 이에 참석한 연합위원들은 전원 찬성, 가결하였다.

연합회 새 구조 시범 운영

연합회는 역동적인 운동 구조,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가능한 구조를 위한 2011년 한국YWCA연합회 구조 시범운영안을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으로 1인 1운동팀(영성·청년·생명·평화·특별운동 영역) 이상 참여하며, 사업과 운동, 회원YWCA 협의와 지원을 통합체제로 운영하고, 시범주력운동은 운동별로 '팀'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1단계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준비와 모델

구조로 운영하고, 2단계는 이후 8월까지 모델 확대와 평가로 운영하여 9월 전국대회 이후 변화된 구조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Y-틴 전국협의회

Y-틴 전국협의회가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YWCA 버들캠프장에서 '인권의 중심에서 희망을 외치다'를 주제로 열렸다. 회원대표(정대표), 회원(방청대표), 실무자, 자원지도자가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청소년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2011 Y-틴', '내 지역에서 시작하는 가깝고 친근한 청소년 운동', '청소년 자치 운동 활성화'를 목표로 '피곤한 1318 내적 치유 프로그램', 'Y-틴을 조명하다', '동아리 어플 제작소', '핫 이슈 토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성화를 모색하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회 신년예배



1월 6일 연합회 강당에서 2011년을 여는 연합회 신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차경애 부회장의 인도와 Y스트링의 반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의 신년예배는 2011년 중점사업주제인 정의운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중곡교회 이천진 목사는 Y다운 정의운동,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정의운동을 펼쳐 나가자는 말씀을 전했다. 더불어 특별초대손님인 CCM가수 김미현의 공연, Y스트링과 이민정 경주Y회원의 협연, 새해에 바치는 김재화 명예위원의 시를 원영희 이사가 낭독하며 새 소망을 되새겼다.

2010 연합회 성탄예배

12월 9일 평화의 염원과 기도 속에 연합회 성탄예배를 드렸다. 이화여대 교목 장운재 목사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제발) 평화'를 주제로 화해를 바탕으로 정의 위에 세워진 평화를 위해 YWCA가 '평화의 산타'가 되어주길 당부했다. 2011년 한국YWCA에 바라는 회원과 시민의 기대를 '네모에 담아보는 YWCA 성탄소망'이란 영상을 통해 사람들이 바라는 Y의 모습을 재조명하였다. 참가자들이 퍼즐조각에 새해 Y에 바라는 소망을 적어 1920년대 초의 YWCA 창립자 선배들의 사진을 함께 완성시킨 '소망퍼즐' 순서를 통해 YWCA의 오랜 역사의 일원으로서의 자각과 함께 활동가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로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은학의 집 성탄예배

노인복지시설 은학의 집은 12월 16일 성탄예배를 드렸다. 이날 은학의 집의 어르신들이 오랜 기간 연습한 핸드벨 연주를 선보였고 실무자들이 선한 나사로에 관련한 성극을 공연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박에스더 선생 10주기 추모예배



박에스더선생 10주기 추모예배가 1월 27일 오전 11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추모예배와 함께 평생을 고국과 한국YWCA의 재건에 헌신하신 박에스더 선생과의 소중한 기억을 추억하는 이야기 나눔, 선생의 삶을 조명하는 의미로 준비된 단막극 '에스더의 하루'가 공연되었다.

(관련기사 P.30~31)

특별물가조사 간담회와 평가회

12월 21일(화) 연합회에서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평가회'를 가졌다.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주요 농수산물 구매 관련 의식조사(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서귀포·청주 7개 지역 2,003명 대상)와 유통매장별 가격실태조사(7개 지역 백화점, 기업형슈퍼(SSM), 동네슈퍼(소매점), 전통/재래시장, 도매점(유통센터), 친환경매장 총 508곳 대상) 결과 발표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 소장이 '농수산물 보관·저장·가공·유통구조의 문제와 새로운 대안'을 주제로 식생활권 보장과 YWCA 소비자운동의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분석결과와 지역별 캠페인 및 토론회를 평가하고 향후 물가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필레선생 기념사업회 창립총회

한국YWCA의 설립자 중 한 분인 김필레 선생의 탄생 120주년을 맞은 2010년, YWCA와 정신학원은 김필레 선생의 지도력을 세상에 알리고 선생의 유지를 잇고자 김필레선생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아 선생이 태어난 지난 12월 20일 연합회 강당에서 창립총회와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한국Y 초기역사 연구에서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김필레 선생의 활동 내용이 소개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념사업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YWCA는 기념사업회 활동으로 선생의 활동을 연구하여 Y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시작으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0 청소년 금융교육 평가 보고회

한국 YWCA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금융교육의 성과와 방향을 재고하는 평가 보고회가 12월 8일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이번 보고회는 씩크머니 자문위원인 KDI 경제정보센터의 천규승 전문위원의 사회로 씩크머니프로그램의 평가연구를 맡은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의 김용자 교수와 방혜영 박사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전주YWCA의 고은경 씩크머니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씩크머니의 교육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교재내용과 평가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2010 석세스 프로그램, 씩크머니 시상식

2010 석세스프로그램과 씩크머니 프로그램의 시상식이 12월 8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수상자와 가족, 자문위원, 심사위원, 금융교육 강사, 씨티은행 관계자들이 함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상을 축하하였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석세스프로그램 기획재정부장관상에 안산동산고등학교 신동준, 연합회회장상에 꿈의 학교 허찬영, 씩크머니 우수협력학교에는 의정부 부용초등학교, 마산 삼계초등학교, 우수 강사로는 수원Y 류혜진 강사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련기사 P.26~29)

인사동정



- ◎ 대구YWCA 사무총장에 박선, 원주YWCA사무총장에 박은경, 김해YWCA 사무총장에 서춘화 씨가 취임하였다.
- ◎ 박은실 연합회 부장이 국장으로, 윤수정 연합회 간사가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 ◎ 이슬비, 이현윤, 이효진이 연합회 운동국 간사로 발령받았다.

고양 YWCA

●이혜경 간사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12월 15일(수) 패밀리데이를 맞아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0년 한해를 함께 돌아보며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울림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마련했다. 다문화 가족의 극활동 및 고양YWCA 합창단, 고양시 군부대의 축하 공연으로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 한데 어울리는 자리가 되었다.

- 12월 2일 자원봉사·후원자 감사잔치
- 12월 4일 커플교육 '알콩달콩 러브스토리'
- 12월 14일 성탄예배
- 12월 15일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수원 YWCA

●이민정 간사

수원YWCA 도우미 송년의 밤

수원YWCA 도우미회원들의 송년회가 12월 11일 진행되었다. 수원YWCA 이명조 회장 외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송년예배를 시작으로 2부 행사에서는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도우미에게 상장을 수여하였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미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행사였다.

- 12월 1일 평생교육 겨울학기 개강
- 12월 7일 결혼이민여성 법률강좌
- 12월 14일 결혼이민여성 영화상영
- 12월 15일 수원YWCA 나눔장터
- 12월 23일 결혼이민여성 뽐내기대회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안산청소년문화의집 개관 10주년 기념식 개최

안산YWCA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18일 '십년지기, 안청집 Home Coming Day~!!'를 내빈과 청소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지난 10년의 발자취 보고와 함께 우수활동자 표창 및 청소년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 12월 4일 다사랑회 사랑의 김장 나눔
- 12월 17일 다문화 사업보고회 및 자조모임 발표회
- 12월 19~23일 산모신생아도우미 품질평가 우수기관 해외견학
- 12월 23일 안산시 자치법규 성인지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안양 YWCA

●조미영 간사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15주년 기념 책자발간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책자는 기관소개, 15주년 활동 현황, 녹색직업과 여성취업 전략(포럼자료), 행복의 징검다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센터의 역할과 향후 비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 12월 14일 2010년 회원송년의 밤
- 12월 24일 복지사업위원회 운영위원회
- 12월 28일 신입이사후보자간담회

광명 YWCA

● 김진숙 간사

광명YWCA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광명YWCA는 12월2일 오후 4시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YWCA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후원자, 이사, 회원들,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년의 기록들을 모은 사진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 12월 11일 저소득층어린이를 위한 주말버스체험활동
- 12월 15일 광명YWCA위탁시립한빛어린이집 재롱잔치
- 12월 29일 무의탁어르신과 함께 하는 송년모임



마산 YWCA

● 한민경 간사

동양교통 나눔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마산YWCA는 동양교통 사랑나눔회와함께 12월 1일 무료급식소에서 거동불편 재가노인과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하여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동양교통의 회원 뿐만 아니라 창원 KBS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날 만들어진 김치는 재가노인 20명과 결혼이민여성 50명, 고령성매매피해여성 20명에게 전달되었다.

- 12월 2일 결혼이민여성과 자녀의 소통프로그램 '모자공감'
- 12월 3일 성매매방지법 집행력강화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좌담회
- 12월 10일 씩크머니 시상식, 전통음식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12월 25일 가족봉사단 활동

김해 YWCA

● 배정숙 간사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2010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김해YWCA에서 운영하는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가 노동부가 주체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의 '2010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는 민간고용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비전 달성을 위한 투자계획,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12월 3~4일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 워크아웃 교육
- 12월 10일 청소년경제금융교육 "씩크머니" 중3특강
- 12월 16일 인간관계 및 이성교제 특강
- 12월 18일 창작 그림자 영어 스크린 음악회

부산 YWCA

● 박정은 간사

부산YWCA 음악회 새터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부산YWCA는 12월 9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회원, 부산시민, 후원기업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2010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부산YWCA합창단, 전통문화연구회 옛소리와 (사)희망의 소리 연주자 등이 출연하였으며 회원성탄제와 함께 진행하였다.

- 12월 7일 좋은 화장실이 있는 음식점소 시상식
- 12월 15일 새터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 12월 22일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캠페인

대구 YWCA

● 김세형 간사

청소년 쉼터 함께 만들어 가는 밤

대구YWCA에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한해동안 쉼터를 위해 마음을 나눈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먼저 성탄절예배를 드리고, 입소청소년들이 공연을 선보였다.

- 12월 16일(목) 대구YWCA 성탄축하예배

안동 YWCA

● 김희정 간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워크샵

안동YWCA는 '청소년유해환경 - 학교폭력의 실태, 문제, 대책'이라는 주제로 신라대학교 이영수 교수를 초청하여 워크샵을 진행했다. 감시단원들과 일반 학부모, 결혼이주여성들이 함께 청소년을 보호하고 꿈을 키워줄것을 다짐하였다.

- 12월 2일~3일 천연비누만들기
- 1월 5~13일 아로마테라피 감사교육
- 1월 25일 제14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창원 YWCA

● 황은진 간사

케냐 '지라니' 어린이합창단공연

케냐 '지라니' 어린이합창단이 창원YWCA의 초청으로 지난 2010년 12월 11일 창원성산아트홀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인 케냐 고르고초 슬럼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아트스쿨을 건립 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이 공연을 통해 창원YWCA는 지역에 공연을 통한 기부문화를 알리고, 멀리 케냐 땅에 희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 12월 13일~15일, 씽크머니금융교육, 웅남중학교

- 12월 15일 사랑의 김장바자회
- 12월 18일 하나울림 다문화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사천 YWCA

● 김지숙 간사

청소년 댄스, 가요 경연대회

12월 2일 사천YWCA에서는 새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창의적인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활기찬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 12회 청소년 댄스, 가요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30팀의 예선참가팀 중 12팀이 본선무대에 진출하여 800여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또래들의 공연을 관람하며 응원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공연문화를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고, 관람 청소년들의 질서정연한 모습과 참가자들의 뛰어난 무대매너로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 12월 10~11일 경남 다문화가족 대축제
- 12월 11일 신애원 약물오남용 교육
- 12월 29일 사천시 아동·여성인권 마을지킴이단 발대식

양산 YWCA

● 이은주 간사

다문화 한국문화 생활체험 프로그램

양산 YWCA는 12월 한 달 간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케이크와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한국생활 이야기나눔 등 다채로운 다문화 한국문화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12월 2일 다문화 한국문화 생활체험 케이크 만들기
- 12월 6일 EM 텃밭가꾸기
- 12월 9일 다문화 한국 생활 이야기 마당
- 12월 23일 다문화 크리스마스 파티
- 12월 30일 양산YWCA 어린이 합창단 작은 음악회

진주 YWCA

● 서혜영 간사

케냐'지라니'어린이합창단 내한공연

진주YWCA는 케냐 지라니어린이합창단을 초청하여 12월 9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내한공연을 가졌다.

- 12월 22일 EM덧밭 농작물 수확 체험활동
- 12월 24일 사랑의 물래산타 대작전
- 12월 27일 난쟁아동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 12월 29일 난쟁 철새 탐사 캠프

포항 YWCA

● 김효정 간사

다문화가정 자립기금마련 의류바자회

포항YWCA에서는 11월 29일 부터 12월 3일까지 지역의 다문화가정에게 무료취업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기금마련바자회를 개최하였다.

- 12월 8일 사랑의 김장나누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유해업소표시 축구 캠페인
- 12월 9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소망의집 한방진료
- 12월 15일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크리스마스케익만들기
- 12월 23, 30일 소망의집 입소자 동반자녀 원어민 영어수업

강릉 YWCA

● 전정미 간사

사랑의 바이올린 연주회

강릉YWCA에서는 1월 8일 제4회 '사랑의 바이올린 연주회'를 열었다. 강릉YWCA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1년동안 열심히 닦은 바이올린 연주 실력을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

동해 YWCA

● 안유진 간사

동해YWCA 후원의 밤

동해YWCA는 12월 7일 2010 동해YWCA 후원의 밤을 열었다. 후원자, 기관장, 단체장, 회원과 이사들이 모여 김래교 회장의 환영사와 김학기 동해시장의 축사, 임인채 지도목사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사업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북여고 이성민 학생의 청소년발언대와 사랑의 바이올린 어린이들의 공연이 있었다.

- 12월 11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계 김장 담그기
- 12월 16일 지역공동체 행복나눔 사랑의 연탄배달
- 12월 22일 성탄감사예배

속초 YWCA

●곽소진 간사

다문화가족 솜씨 발표회

속초YWCA에서는 12월21일 2010 다문화가족 함께해서 행복해요~란 주제로 일년간 배우고 익힌 기술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역민과 연계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다문화가족들이 직접 연습하여 준비한 합창, 나라별 전통춤과 한국의 전통춤이 가미된 댄스인 태권무 등을 선보였다.

- 12월 14일 다문화어린이 요리로 배우는 인권교실

원주 YWCA

●차은혜 간사

중3 경제특강

원주YWCA는 12월 17일 삼육중학교에서 중3 경제특강을 진행하였다. 세 분의 강사가 3학년 3학급을 대상으로 돈의 의미와 돈 제대로 쓰기, 용돈 관리 및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용돈 운영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 12월 18일 사랑의 우체국 종강식

인천 YWCA

●김주희 간사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기부금 전달식

12월 17일 인천YWCA회관에서는 23명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1년 동안 3만 5천여 시민들이 참여하고 연간 1,012가족 참가, 41,706건의 물품 나눔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금된 3백 3십 만원과 물품, 박준희 회장이 후원한 쌀을 11명에게 전달하였다.

- 12월 2일 신축회관 입주
- 12월 3일 고3 씽크머니 교육
- 12월 16일 입주감사 예배 및 송년이사회
- 12월 22일 중3 씽크머니 교육

춘천 YWCA

●황재옥 간사

YWCA·YMCA 연합 예배

춘천YWCA는 12월 2일 춘천 YMCA 강당에서 YMCA와 YWCA의 공동 연합예배를 드렸다. 춘천YWCA·YMCA 전 직원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12월 10일 YWCA 전 직원 워크샵
- 12월 13일 이사·직원 성탄예배
- 12월 16일 직업개발부 송년모임

서부
지역

광양 YWCA

●정환숙 간사

여성폭력예방교육

광양여성상담센터에서는 12월 29일 보호관찰소 수감명령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교육 및 "성!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은 참가자들이 성에 관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음란물이 주는 영향과 성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성폭력에 관한 사례와 잘못된 통념을 짚어 보는 순서 등으로 진행되었다.

- 12월 8일 이주여성입체 카드 만들기
- 12월 13,14,15일 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 집단상담
- 12월 15일 광양여성상담센터 여성폭력예방교육
- 12월 23일 성탄예배

광주 YWCA

● 손유영 간사

제15회 소비자의 날 기념 대통령상 수상

1991년 독립기구인 소비자상담실(고발센터)를 열고 광주시민의 소비자문제 해결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앞장서오고 있는 광주YWCA가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산모도우미 보건복지부 장관상, 대한민국 인권상, 아동·여성 폭력방지 유공자 포상, 청소년 우수지도자부문 광주광역시장상, 등 2010년 광주YWCA는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 12월 10일 돌봄과 살림 현판식
- 12월 11일 LG이노텍임직원·다문화가정 자녀 1:1 희망멘토링 장학금 전달식 및 시상식
- 12월 13일 농수산물 가격실태조사 캠페인
- 12월 16일 성탄축하예배 및 문화센터 발표회

군산 YWCA

● 박송이 간사

평화중고등학교 성탄축제

군산평화중고등학교는 12월 20일 크리스마스축제 행사를 가졌다. 만학도들이 그 동안 준비했던 독창, 연극, 중창, 비보이 댄스, 난타, 플룻, 하모니카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발표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 12월8일 독거어르신사랑의김장김치나누기
- 12월16일 정책위원회
- 12월20일 부설평화중고등학교성탄축제
- 12월28일 군산교도소성탄기념생일예배

목포 YWCA

● 정현정 간사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목포YWCA는 12월 4일 6년째 맞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농협목포유통센터에서 가졌다. 총 1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6,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600여 세대와 나누었다.

- 12월 4일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2010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 12월 9일 이웃돕기 추석맞이 바자회 수익금 나눔
- 12월 17일 성탄축하예배

순천 YWCA

● 김아라 간사

사랑의 연탄나누기

12월 4일 순천 YWCA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삼양그룹 임직원 및 가족 30여 명이 참가해 영세독거노인, 장애인 등 6가구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5천장을 전달했다.

- 12월 18일 순천YWCA와 순천효산고 꿈모리 멘토링
- 12월 21일 서로살림 평가회 및 송년회

서귀포 YWCA

● 김지희 간사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서귀포YWCA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12월 3일 오후 7시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서귀포YWCA소년소녀합창단은 '노래하GO, 즐겁GO, 신나GO!'를 주제로 성가곡과 신나는 우리가락, 만화주제곡 등을 선사하였다.

여수 YWCA

● 이신임 간사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

여수YWCA 청소년동아리 Y-틴은 12월 18일 고소동, 공화동, 관문동 일대에서 사랑의 몰래산타대작전을 펼쳤다. 이 행사는 여수지역의 아동 10명의 사연을 받아 진행되었다. Y-틴들은 아동들에게 선물과 손수 만든 케익을 전달하였다.

- 12월 3일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
- 12월 4일 멘토멘티결연식
- 12월 9일 여수YWCA 합창단 정기연주회
- 12월 28, 30일 여천시립도서관과 함께하는 초등경제교육

익산 YWCA

● 최유정 간사

성탄맞이 파티

익산YWCA는 12월 21일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성탄절을 맞아 각자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와 함께 나누는 파티를 열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캐롤배우기, 성탄카드 만들기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 매주 화요일, 목요일
- 12월 13일~14일 이사연수

전주 YWCA

● 김은진 간사

전라북도 하나센터 송년의 날 화합한마당

'전라북도 하나센터 송년의 날 화합한마당'이 지난 12월 20일 전주연세교회 비전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멘토 봉사자, 가족, 위원, 회원 등 150여명이 함께 하였다. 행사는 북한이탈주민과 멘토 봉사자의 활동 이야기, 북한이탈주민의 '나의 남한 생활 적응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12월 4일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다문화 큰잔치
- 12월 8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노인 시설 봉사활동

- 12월 14일 여성경제특강
- 12월 29일 전주시 청소년 진로직업조사 연구 보고서 발간

제주 YWCA

● 강지혜 간사

어린이집 김장 만들기

제주YWCA 어린이집은 12월 10일 유아들과 함께 김장 만들기를 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양념장을 배추에 발라보고 맛도 직접 보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12월 4일 성폭력예방을 위한 극단 창단 및 공연,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행복나무 가꾸기'
- 12월 6일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커리어업스쿨"개강
- 12월 9일 민들레학교 인터넷중독예방교육
- 12월 11일 민들레학교 기후변화교육,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 12월 14일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행복나무 가꾸기'
- 12월 15일 일촌기업 및 서포터즈 간담회

중부 지역

논산 YWCA

● 김화선 간사

다문화 성과보고회

2월 29일 논산YWCA 다문화가족지원사업부에서는 다문화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논산YWCA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7 테마사업 지원을 받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을 마감하며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다문화 가족이 초청되어 영상으로 보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상영, 결혼이민여성이 준비한 다문화 연극 "7인의 신부" 공연, 사례관리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한글교실 및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교육 : 매주 화, 목요일
- 12월 4, 18일 내마음을 받아줘 프로그램 (쿠키, 케익만들기)
- 12월 4, 11, 28일 올바른식습관교실
- 12월 13일 다문화 보육 팻트공예

대전 YWCA

● 정미자 간사

성탄절에 드리는 '작은 음악회'

12월 14일 대전 YWCA 강당에서 회원, 자원봉사, 직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탄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새벽교회 최준학 목사의 설교와 성탄절에 드리는 작은 음악회가 마련되었다. 신수정 교수와 이민호 교수의 노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의 오카리나 연주가 있었다.

- 12월 11일 어린이-Y 체험 학습단 '장태산 숲 체험'
- 12월 14일 성탄예배 및 작은음악회
- 12월 18일 토요일부부교실
- 12월 30일 여성의 쉼터-미술치료 개강

서천 YWCA

● 이미란 간사

사랑의 떡상자 나누기

서천YWCA에서는 소외된 우리지역 불우이웃 가운데 회원들이 추천한 이웃들에게 회원들이 직접 떡상자를 배달하는 '사랑의 떡상자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회원들이 직접 정성으로 준비한 쌀과 후원금으로 떡과 음식이 담긴 상자를 만들어 25가정에 배달하였다.

- 12월22일 EM비누만들기

제천 YWCA

● 류인숙 간사

지적장애인 만두 및 햄버거 만들기 체험

제천YWCA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올리'에서 1월 10일과 24일 지적장애우 만두 만들기 체험행사를 하였다. 제천지적장애인협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체험행사는 장애우들에게 만드는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 12월 1일 청개구리 밴드 결성
- 12월 3일 씽크머니 교육
- 12월 7일 제천YWCA 올리 사회적기업인증 기념 시식회
- 12월 23일 창립25주년 기념식

조치원 YWCA

●홍진영 간사

연기군청소년 문화축제

조치원YWCA Y-틴 오투밴드는 12월 4일 수험생 및 예비수험생을 위한 문화축제를 열었다. 오투밴드는 희망을 전하는 건전한 노래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청소년 밴드이다. 이날 공연은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노래를 통해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자리가 되었다.

천안 YWCA

●김상미 간사

이사·직원 성탄예배

김철수(천안장로교회)목사의 설교로 천안YWCA 이사 및 직원 70여 명이 성탄예배를 드리고 웃놀이로 화합을 다졌다.

- 2월 27일 청소년인터넷유해환경모니터링
- 2월 11일 참사랑간병회 정기총회
- 2월 11, 21, 24일 고령자 소양교육
(질문을통해알아보는직장생활 등)

청주 YWCA

●이한나 간사

언니 오빠에게 배우는 금융교육 씽크머니

청주YWCA Y-틴 회원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금융교실을 진행하였다. 11월에 시작한 금융교실은 아나바다거리장터체험, 용돈기입장 작성법 등 놀이체험을 통해 올바른 금융관을 심어 주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 12월 10일 씽크머니 고3특강
- 12월 16일 클럽·민들레 송년모임
- 12월 20일 돌봄과 살림 전환교육
- 12월 23일 길위의 학교 공정여행

충주 YWCA

●김애영 간사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

충주YWCA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충주시 각 기독교 단체 임원, 후원교회 목사님,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기독교단체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12월 15일 사회선교위원회 노인전문병원 방문선교
- 12월 20일 창립 25주년 기념예배
- 12월 20일 친환경매장 올리 시식회
- 12월 23일 일자리 나눔마당
- 12월 27일 유소년문화체험 '키자니아'

Mamonde

토탈보습으로 10가지 효과를 빈틈없이

피부를 완벽하게 챙겨주는 마몽드 토탈솔루션

피부좋다는 얘기는 건조함, 잔주름, 피부톤까지 빠짐없이 좋아져야 들을 수 있죠. 이제 새로워진 마몽드 토탈솔루션으로 10가지도 넘는 다양한 피부 문제를 해결하세요. 피부가 촉촉하고 회사원만 애용하는 유자해 알룰로산이 들어있답니다. 난 마몽드

NEW



발아공과 동백임 성분의 토탈보습

피부표면의 수분을 잡아주고 보습하므로 코팅하여 우수보습력. 피부톤, 잔주름까지 해결합니다.



피부수분량 -18.36% 감소, 피부수분량 6.83% 증가

토탈솔루션 2주 사용 후 실험 결과
* 토탈솔루션 폼이스트 크림의 피부 수분량, 피부탄력 증진을 실험기간 내 실험결과 - 실험대상: 성인여성 20명
실험기간: 2014년 6월~7월 / 조사방법: 토탈솔루션 2주 사용 후 측정 / 2, 4주 사용 후 2주 후 측정
주요진단기기: 트루스킨

My Favorite Beauty Shop
ARITAUM
www.aritaum.com

•아리따움에서 마몽드를 만나세요 •고객상담실 080-023-5454 www.mamonde.com

가

강릉 033.651.1385
 거제 055.682.4950
 경주 054.772.8141
 고양 031.919.4040
 광명 02.895.1966
 광양 061.762.0012
 광주 062.524.3511
 군산 063.462.4491
 김해 055.332.6000

나

남양주 031.577.7762
 남원 063.632.7002
 논산 041.736.7393

다

대구 053.652.0070
 대전 042.254.3035
 동해 033.531.3007

마

마산 055.246.8746
 목포 061.242.1611

바

부산 051.441.2221
 부천 032.668.9700

사

사천 055.833.9981
 서귀포 064.762.1400
 서울 02.3705.6000
 서천 041.951.6400
 성남 031.701.2501
 속초 033.635.8663
 수원 031.252.5111
 순천 061.744.7990

아

안동 054.854.5482
 안산 031.483.6536
 안양 031.455.2700
 양산 055.367.1144
 여수 061.654.2161
 경주 054.772.8141
 울산 052.247.3520
 원주 033.742.6090
 의정부 031.853.6332
 익산 063.857.8910
 인천 032.424.0524

자

전주 063.224.5501
 제주 064.711.8325
 제천 043.646.6009
 조차원 041.865.2432
 증평
 진주 055.753.6133
 진해 055.542.0020

차

창원 055.283.9488
 천안 041.575.0961
 청주 043.265.3700
 춘천 033.254.4878
 충주 043.848.3240

타

통영 055.641.2537

파

파주 031.945.5998
 평택 031.651.7701
 포항 054.274.4444

하

하남 031.793.7771

준비회

밀양